

2015

HAJA CENTER
ANNUAL REPORT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 101
201
302
303

5차 어린이서커룸 운영



목차

haja profile

6

- 조직도
- 2015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
- 재정 현황

청소년 진로교육

11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청소년 창의캠프
-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 청소년 전환기캠프 스프링캠프
- 청소년 토요일진로학교
-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 방과후@하자
- 토요일 오픈클래스
-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청소년 운영위원회
- 교육협력사업

하자 네트워크학교

60

- 하자네트워크학교
- 하자작업장학교
-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 로드스콜라
- 영세프스쿨

하자허브

80

- 허브갤러리
- 작은 달시장
- 나눔부엌
- 자공공 아카데미 4기
- 커뮤니티 목공방
- 마을자전거공방
- 흙공방
-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내외부 네트워크 & 파트너십

114

- 마을 의례
-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2015 달시장(영등포 달시장)
- 대외 홍보사업
- 하자투어
-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연구
- 연금술사 일학교

haja profile

조직도
2015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
재정 현황

조직도

센터장

부센터장

운영지원부

경영기획팀

팀장 1명
인사·총무 1명
회계·행정 1명
자원·물품관리 1명
전산관리 1명

시설팀

시설관리 1명
영선 1명
경비/보안 2명
환경/미화 2명

기획부

기획1팀

팀장 1명
교육기획 3명
공방 3명

기획2팀

팀장 2명
홍보 1명
허브 3명
생청 2명

학교운영팀

학교장 1명
팀장 1명
교사 3명

2015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들

1월~12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진행

1월~12월 청소년 동아리 결성 및 활동

1월~12월 커뮤니티 목공방 프로젝트 (커뮤니티 목공방, 주섬주섬 공작단 등)

1월 12일~1월 15일 청소년직업체험캠프커리어워크

2월 8일~2월 17일 마스터클래스-즉흥춤수업 5회차

3월~12월 교육협력사업 진행

3월~12월 작은달시장(매달 첫 번째 토요일, 총 9회 진행)

3월~12월 수요나눔부엌(매주 수요일 점심)

3월~5월 자공공아카데미(총 8강)

3월~10월 휴공방 휴워크숍 진행

3월~12월 생각하는 청개구리 어린이 창의클래스 (1학기, 2학기)

3월~12월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연구 진행

3월 10일~12월 19일 마을형 방과후 학교 <수상한식탁>

3월 10일~11월 26일 청소년 자전거교실 <소셜라이딩 & 자전거머머만들기>

3월 11일 하자네트워크학교 <후쿠시마 추모의 시간>

3월 18일 하자마을 입촌식 <마을의 씨앗>

3월 21일~12월 29일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3월 24일~6월 2일 하자네트워크학교 <탈경계인문학>

4월~11월 목화학교목화농사

4월~12월 허브갤러리 전시(총 16회)

4월 4일~7월 18일 2015 청소년 토요일학교

4월 7일~12월 18일 하자네트워크학교 낭독 모임 <마을의 시인들>

4월 15일 하자마을 시농제

4월 16일 하자네트워크학교 <세월호 추모의 시간>

4월 18일~11월22일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진행 (총 9회)

4월 30일~11월 19일 생활자전거프로젝트<카코바이크워크숍>

5월~10월 달시장(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총 5회 진행)

5월 18일 하자마을 성년식

6월 26일 하자네트워크학교 <고정희 추모낭독회>

7월 13일~7월 22일 마스터클래스-즉흥춤수업 6회차

7월 22일 하자네트워크학교특강<재난, 그 2년 후>

7월 28일~7월 31일 청소년 창의캠프

8월 25일~12월 17일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씨앗학교>

9월 18일~9월 20일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9월 27일 달맞이 축제

10월 16일~12월 31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놀이웹툰 "링가링가"> 연재

11월 23일~11월 24일 하자마을 김장잔치

12월 3일~12월 5일 2015 스프링캠프

12월 13일 하자네트워크학교 학기말 파티 <안녕하자>

12월 18일 하자마을 생일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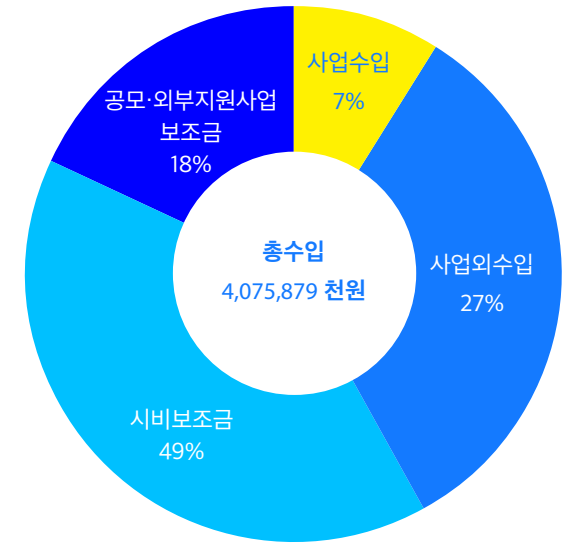
하자센터 2015년 재정현황

하자센터 수입현황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사업수입	프로그램 강습료, 시설이용료		286,227
사업외수입	이월금, 법인전입금, 기타		1,080,163
시비보조금	시보조금(운영보조금, 인센티브), 기능보강사업보조금		1,995,439
공모사업 보조금	세부내역	재원처	보조금 총계
공모·외부지원 사업 보조금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연구	서울연구원	714,050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특성화고지원사업보조금	서울시교육청	
	마을장터 달시장	영등포구청	
	대안학교 운영보조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급식비 보조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 선택 프로그램	서울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어린이 창의교육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한국암웨이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 삶의 기반'	JP모간	
총수입			4,075,879

2015 수입현황



총수입 100% 4,075,879 천원

사업수입 7% 286,227 천원

사업외수입 27% 1,080,163천원

시비보조금 49% 1,995,439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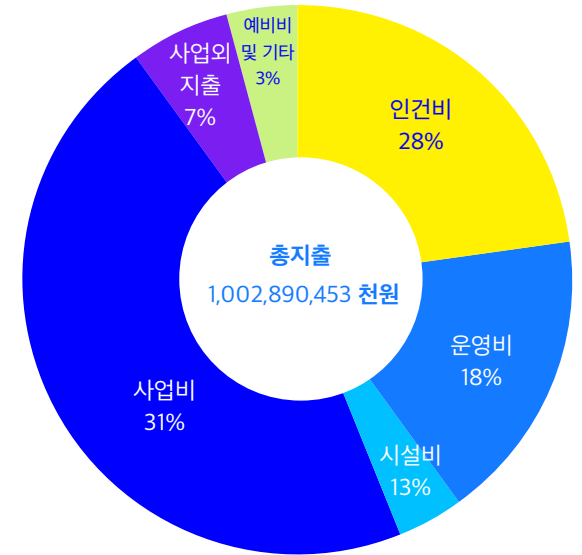
공모·외부지원사업보조금 18% 714,050 천원

하자센터 지출현황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인건비	인건비	808,625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상이전 등	533,416
시설비	시설유지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362,403
사업비	청소년 진로(일일직업체험, 토요샐미디자인학교, 내인생의 스프링캠프)	902,747
	청소년창업캠프, 커리어워크	
	학교연계프로젝트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방과후하자)	
	교육협력(놀토 엑스포, 주섬주섬)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대안교육 지원사업(네트워크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하자허브(허브교실, 허브갤러리, 나눔부역)	
	하자공방(흙공방, 목공방, 자전거공방)	
	하자마을사업(마을 의례, 하자마을책방)	
	영등포 마을장터(영등포 달시장, 작은달시장)	
	자공공아카데미, 마을형 교육포럼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 삶의 기반'	
	어린이 창의교육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청소년인재양성교육(연금술사 일학교)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연구	
사업외지출	예수금, 예치금	209,527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과년도지출 등	73,735
총지출		2,890,453

2015 지출현황



- 총지출 100% 1,002,890,453 천원
- 인건비 28% 808,625 천원
 - 운영비 18% 533,416 천원
 - 시설비 13% 362,403 천원
 - 사업비 31% 902,747 천원
 - 사업외지출 7% 209,527 천원
 - 예비비 및 기타 3% 73,735 천원

청소년 진로교육

-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 청소년 창의캠프
- ◇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 ◇ 청소년 전환기캠프 스프링캠프
- ◇ 청소년 토요일진로학교
- ◇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 ◇ 방과후@하자
- ◇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 청소년 운영위원회
- ◇ 교육협력사업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개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청소년기에 가장 고민하는 주제인 '진로'에 대하여 멘토와의 만남과 워크숍을 통하여 탐색해보는 프로젝트이다. 멘토가 들려주는 직업 이야기를 들으며 이후 워크숍을 통하여 직업을 체험해보게 된다. '강의'보다는 '체험'에 비중을 두어 몸으로 익히고 놀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문화예술분야 중심의 체험형과 작업자와 함께 몸을 쓰고 감각을 익혀보는 작업형으로 나뉘며 20여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2015년은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일회성을 극복하고 체험과 삶의 연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다회차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 사업 이름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대상 : 14~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참가방법 : 온라인예약사이트에서 신청 / rg.haja.net
- 참가비 여부 : 오전(2시간) 7,000원 / 오후(3시간) 10,000원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63,599,668원
- 총 참여인원 : 7,681명 (실인원)

기획의도

일일직업체험은 연간 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정기적 프로그램으로, 하자센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낮은 문턱으로서 기능하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런 접근성을 활용하여 하자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진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중점으로 기획했고 ‘심화형’이 신설되었다. 심화형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현재의 직업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불명확한 시대상황을 공감하며, 정보제공의 체험 형태 보다 ‘일’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진행

구분/시간	수	금
체험형 10:30~12:20 (2시간)	①네일아트 ②분장 ③보컬 ④뮤지컬 ⑤그래피티 ⑥스트리트댄스 ⑦마술 ⑧플로리스트	①네일아트 ②분장 ③보컬 ④뮤지컬 ⑤그래피티 ⑥스트리트댄스 ⑦패션디자인 ⑧캘리그래피
작업형 13:30~16:30 (3시간)	①라디오 ②게임만들자 ③영상 ④싱어송라이트 ⑤요리⑥천연염색 ⑦춤마임 ⑧친환경문구디자인	①라디오 ②게임하자 ③영상 ④싱어송라이트 ⑤목공 ⑥천연염색 ⑦춤마임 ⑧친환경문구디자인
심화형 (4회차 이상)	①서로를 살리는 디자인 ②스튜디오 뮤지컬 ③목공하자 ④자전거리사이클링	

구분	참가학교			참가단체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복지관 등	
이용시설(곳)	91	47	3	13	154
이용인원(명)	6,799	658	42	182	7,681
다회차 참여	4회: 영원중, 일산동중, 은평고 3회: 덕양중, 무원중, 신남중, 연신중, 염창중, 파평중, 경기여고, 대일관광고 2회: 부천동여중, 고림중, 공향중, 구운중, 금광중, 기안중, 서울사범대부속여자중, 서운중, 양동중, 양구중, 장곡중, 천왕중, 진위중, 통진중, 홍천농업고, 광명특수고, 계양고, 광천제일고, 여강고, 전북여자고, 참좋은고, 천안업성고, 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림청소년쉼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상담복지센터, 서울동천학교				
면제자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상암고, 심원고, 경기여고, 동작고, 홍천농업고, 광명특수고, 서울동천학교				

성과

심화형 프로그램이 내포하고 있는 지향점은 '일' 자체에 대한 관념의 확장과 경험이었다.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불명확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보제공과 체험이 아닌 '일' 자체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해 프로그램 개설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새로운 직업군의 소개였다.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콘텐츠인 '오디오 뮤지컬' 그리고 소비시장을 위한 패스트 디자인이 아닌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저스트 프로젝트 디자인'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이 대안적이거나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의 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화 및 활동이 참여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이나 취직을 위한 정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전달할 수 있었던 장치가 되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안교실', '자유학기제' 등의 정책에서 연계 지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평일 3~4회, 주말 4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몇몇 학교와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성찰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며 그것이 청소년들의 삶에 녹아들게끔 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도가 담긴 프로그램이 정례화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다회차로 구성되는 프로그램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업에서 종사하는 강사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부분이 특히 어려웠다. 또한, 참가 청소년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회차가 늘어나면서 보이는 변화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균형 있는 평가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전망

자유학기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직업·진로체험의 사회 분위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고, 더불어 각종 청소년 정책들의 운영 초점 또한 외부활동과 직업·진로체험으로 설정되었다. 직업체험센터들이 구(區)마다 생긴 것 그리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꿈길이라는 진로프로그램 정보 모음 사이트도 마련된 것들이 그 예이다.

당해 연도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자센터만의 진로교육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실험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얻은 변화로는 학교의 진로·직업과 관련된 시간을 하자에서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보다 유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이후에도 더욱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내년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다 세세히 기록하며 정리해나가야 할 것이고,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들과 논의하며 각종 정책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하자의 직업·진로 프로그램들을 정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more info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든든 지원
<http://www.hankookilbo.com/v/158f52a4d31541c1950e8622157528e8>
 <한국일보> 2014.10.14

· 꿈 찾아 직업체험하고 싶은 청소년, 모이세요!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40926010003627>
 <브릿지경제신문> 2014.9.27



청소년 창의캠프

- 사업 이름 : 청소년 창의캠프
- 대상 : 17~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7월 28일 ~ 7월 31일 (총 4일)
- 참가방법 : 학교장 추천 및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43,000,000원
- 총 참여인원 : 142명 (총 32개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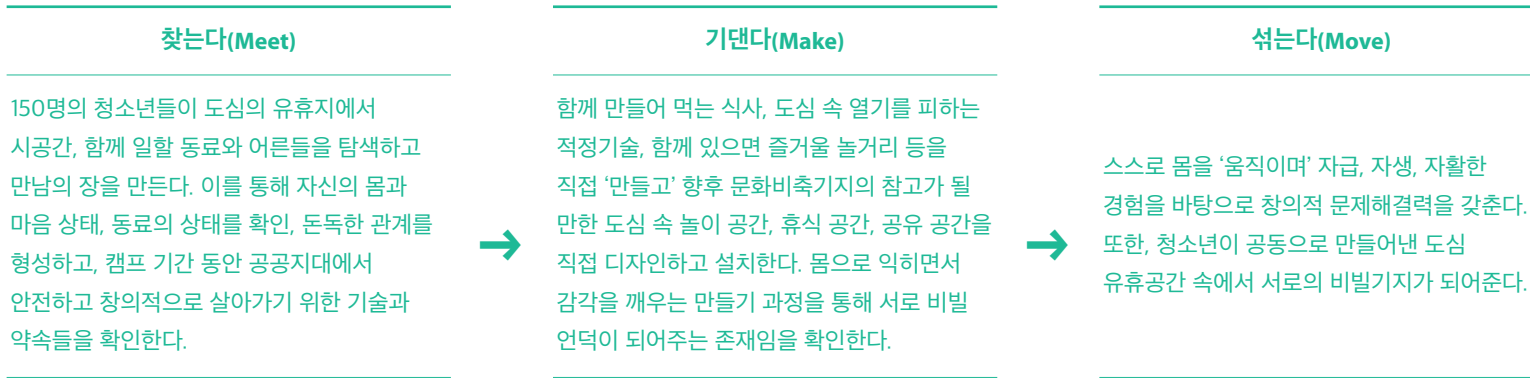
‘서로를 살리는 여름_비밀기지 만들기’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소통과 협력, 자립과 자활의 기술을 배우는 현장 중심의 캠프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의 유희지(현 석유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창의적 사고와 활동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멘토로 만나, 다른 학교의 또래 혹은 선배들과 함께 즐겁게 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형 캠프이다.

기획의도

창의캠프가 그간 진행해 온 <공공-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의 콘셉트를 유지하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을 좀 더 고려한 경험을 제시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파편화, 개별화로 홀로 생존해야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공공적 관점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구체적 변화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공공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많은 자본과 시스템이 아니어도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일상에서 작은 시도를 할 수 있는 활력의 계기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과’ 공동으로 캠프를 기획하며, 마포석유비축기지의 현안을 놓고, 우리의 실천으로 공공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제를 실현해보았다. ‘비밀기지’라는 다소 이상적인 이름의 공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보는 공유지는 찌는 더위가 공존하는 여름을 살리는 우리의 지혜가 녹여진 놀이터가 되었다.

1) 캠프 흐름



팀별작업 워크숍

“서로를 살리는 여름, 비빌기지 만들기”라는 대주제 아래 도시 속 유희공간을 탐색하고 그곳에 각 팀의 비빌기지(서식지)를 기획→설계→만들기 함. 이에 마포석유비축기지에 위치한 문화로놀이짱 일대를 무대 삼아 자연과 사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질 수 있는 10개의 개별 워크숍을 진행. 각 분야의 전문가 3인과 12~15명의 청소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공간탐색→미션 만들기→직접 구체화하며 제작하기→비빌기지 탄생의 과정을 거침.

내용	진행팀
비빌기지 일대의 소리를 수집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를 만들	복태와 한군
버려진 것들을 조합해 함께 놀 수 있는 놀잇감을 만들	미달이공작단
간단한 작업과 즐거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수자원 놀이터를 만들	땡땡이공작
비빌기지를 탐색하며 떠오른 언어들 수집하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 빵과 스프로 만들	여러 가지연구소
비빌기지 일대의 지층구조 및 자연물 관찰을 바탕으로 역사를 분석하며 나와의 접점을 만들	퍼블릭그라운드
목공 등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놀잇감을 만들고 즐겁게 놀기	가제트와 웬디
지하수의 시원한 기운을 끌어내어 쿨링시스템을 만들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구성	달라라
서식지(주거)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토론을 바탕으로 생태 서식지 구성	문화로놀이짱A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들로 만들어보는 서식지 구성	문화로놀이짱B
자전거로 가는 여행길에서 삶에서 힘이 되어줄 비빌언덕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봄	미쓰로

성과

캠프 설문 결과를 보면, 1학년, 2학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업과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창의캠프가 전반적으로 흥미로웠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77.7%(매우 그렇다 : 47.6% + 그렇다 : 30.1%), 창의캠프가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69.9%(매우 그렇다 : 35.0% + 그렇다 : 35.0%), 그리고 창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의견이 72.8%(매우 그렇다 : 39.8% + 그렇다 : 33.0%)인 것으로 보아, 캠프의 전체적인 기획 의도 및 구성이 청소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창의캠프를 통해 참가자가 배우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식 설문을 받았다. 캠프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참가 신청 당시에 청소년들이 대답한 창의의 개념은 거의가 “나(개인)”과 “특별한 능력”을 중심 대답하였다. 4일간의 창의캠프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창의란 “우리를 중심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활동”, “작업 환경에 대한 온전한 집중”, “직접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다수였다.

‘서로를 살리는 여름-비밀기지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찾는다, 쉬는다, 기댄다.’라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팀을 섭외하였고, 활동 영역과 매체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신선하게 돌아보고,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탐색하며 세상살이에 대해 창의적인 시도들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성찰

올해 처음 시도한 공동기획은 사전 준비 기간 동안 의사소통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으며 현장 진행 중에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등 효율면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었다. 하자센터와 문화로놀이짱 모두 생소한 외부 연계를 넘는 협업 구조였기에 사소한 것까지 톤을 맞추고 조율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 판단된다. 공동기획에 대한 어려움으로 비롯된 비효율성은 일회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청소년 진로교육에 있어 단체 간 정보/자원/노하우의 공유, 새로운 콘텐츠의 생성, 진로교육의 지향점 발굴 등,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 여겨지며 이 부분에 대한 하자센터와 문화로놀이짱의 전체 평가는 시도 자체의 의미미성, 단체 간 협업의 발전 가능성, 청소년 진로교육의 확장과 공유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망

오늘날 청소년들을 설명할 때 “말 잘 듣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야생성을 잃은”, “왜 저러는지 답답한”, “무기력한” 등의 수사를 종종 사용한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친구와 동료로 발견하고, 혼자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동료로 만나고 함께 힘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비밀기지 만들기”라는 대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구성, 동료와 어른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기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은 캠프 안에서 자기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동료로 만드는 경험을 하였고, 동시에 함께한 작업자, 하자센터의 여러 판돌들의 지지와 응원, 격려를 받으며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들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코멘트

"짧은 시간동안 지켜보면서 재밌었던 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참 어른 같을 때가 많고, 어른들이 생각보다 참 애들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였고요. 첫날은 톱질 하는 게 무섭다고 한 발 물러서 있던 친구들이 그 다음날은 직접 톱을 다뤄보고 나무도 잘라보고 재밌어하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좋았던 점 애긴 많이 들었는데, 아쉬웠던 점, 싫었던 점 이야길 많이 듣지 못해 아쉽네요."

맹팽이공작 정재원

"일단 제 인생에서 어제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다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걸 보면서 비밀 언덕이 이렇게 좋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이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서 계속 꼴찌로 다녔는데 달릴 때도 뭐라고 하지 않고, 힘내라고 하고, 기어 바꾸라고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쓰로팀 무무

"2박 3일 동안 소리를 사고, 소리를 녹음하고, 귀를 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귀한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활동한 시간은 좀 짧았지만 저희는 많이 친해졌거든요. 제가 사실은 캠프 기간 동안 그냥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언덕들 좋은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저는 이 4일간의 캠프를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태와 한군팀 바루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하는 비즈쿨 캠프에 나가는 것이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니까 재밌었고 언덕들 같은 착한 분들 만나서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사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미달이공작단팀 필



more info

1) 하자센터 뉴스레터 : 리뷰 기사
<http://www.haja.net/?p=11815>

2) 창의캠프 공식 SNS(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vivilkigi>

3) 캠프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135045057>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개요

커리어위크 (Career Week) 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하자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숨어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직업과 일을 찾아 이들의 작업공간에서 함께 일해 보면서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그려볼 수 있는 프로젝트형 캠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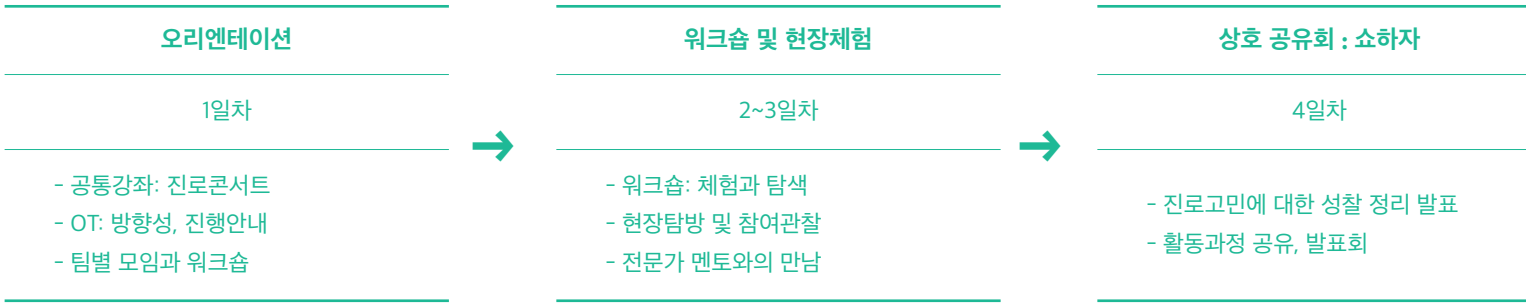
- 사업 이름 :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 대상 : '2015년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참가학생 및 각 특성화고 학교장 추천 학생 200명
- 진행기간 : 2016년 1월 12일 ~ 1월 15일
- 참가방법 : 학교별 모집 후 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50,000,000원(서울시 교육청 사업지원금)
- 총 참여인원 : 실 인원 181명(연인원 1,448명)

기획의도

특성화고교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학을 통해 진로 선택을 하고, 직업을 염두에 두어 첫 번째 전공을 선택합니다. 디자인, 경영, 컴퓨터, 영상, 조리 등 각자의 전공과가 그것입니다. 1-2년 후면 청소년들이 사회라는 곳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때는 주변과 세상의 기준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못지않게,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우고 주변과 더불어 멋지게 사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가까운 미래에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될 일과 직업의 현장에서 유용한 삶의 기술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창업, IT, 공연, 예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소셜벤처기업을 일구어 활동하는 10개 팀과 연계하여 4일간의 일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동료를 만들고 그들과 즐기면서 일하는 법, 스펙보다는 열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힘, 과도한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법, 충분한 돈이 아니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업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에너지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1. 진행과정



1. 전공 분야 및 소개

전공	팀	소개
① 기승전 장사학과	청년 장사꾼	<p>· 세상 모든 것이 장사다! 형,누나들이 미리 겪어보니 세상은 모든 것이 결국엔 장사더라! 장사의 기본을 열정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은 청년장사꾼으로 모이세요! 여기엔 대한민국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실전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장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역문화도 살리는 청년장사꾼이 도와줄게요!</p> <p>· 관련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youngselle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llourpassion/ - 관련기사 :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지 마라 내 발로 내 길을 열마든지 갈 수 있어 , 청년장사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1/2015011102378.html?csmain
② 놀이 총만학과	놀공 발전소	<p>· "놀이"는 일이 될 수 없다고? 천만의 말씀! PLAY, WHAT WE DO!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놀듯이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놀공과 함께 하세요. '놀이'와 '교육'을 조합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빅게임'을 연구하며 그 가치를 전파합니다. "더놀자 페스티벌", "놀공 클래식" 같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2015 커리어워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노력금지! 놀력충만!!</p> <p>· 관련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nolgong.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olgong/ - 관련기사 : 노력하면 혼나는 회사 '놀공발전소', 다녀볼래요? http://ch.yes24.com/Article/View/24853

<p>③</p> <p>생생한 유통학과</p>	<p>생생농업 유통</p>	<p>· 농사는 힘들지만 할 거란 편견은 버려! 농업은 놀이가 되고, 예술이 되고,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곡식과 채소를 키우는 건 구체적인 노동과 진실된 마음, 그리고 야생을 즐길 줄 아는 호연지기! 노동의 이력과 마음으로 길러낸 농산물/농업에 대해 공부합시다. 정성스런 삶을 담은 농업생산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진가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요.</p> <p>· 관련자료 - 관련기사 : 고추·상추·산나물 팔아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4506.html - 관련기사 : 기계처럼 일하다 '깡촌'으로 여기서 사치 좀 하고 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764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 협력기관 '소녀방앗간' http://www.jobnjoy.com/portal/joystory/ggol_q_view.jsp?nidx=81149&depth1=2&depth2=2&depth3=2</p>
<p>④</p> <p>우리 동네 고고학과</p>	<p>블랭크 (blank)</p>	<p>· 요즘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오래된 시장과 작은 상점, 버려진 공터와 빈 건물 모두가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커뮤니티 디자인!'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의 숨겨진 이야기와 장소를 발굴하여 일상이 일이 되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함께 경험해 보아요. 동네벤처 BLANK의 청년 건축가와 기획자들이 여러분의 꿈을 함께 고민해줄게요!</p> <p>·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www.blankin.net/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lankseoul - 관련기사 : [살아나는 마을]청년들의 유쾌한 도전, 동작구 '청년플랫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211342599380</p>
<p>⑤</p> <p>연애 요리학과</p>	<p>오가니제이션 요리</p>	<p>· '요리와 세상과 연애하는 사람' '요리로 연애하는 사람' '요리도 연애처럼 궁합보는 사람' '요리도 연애하듯 달달하게 하는 사람' '요리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면서 요리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가 버무려진 요리하는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요리와 함께 "작업의 정석, 연애요리편" 진정한 삶의 기술을 위한 캠프, 기쁘지 아니하겠는가!</p> <p>·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www.orgyori.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ngchef8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인문학과 요리의 만남, 맛있는 청소년대안학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169</p>

<p>⑥</p> <p>은근공연 예술학과</p>	<p>유유자적 살롱</p>	<p>· 슈스케, 케이팝스타를 보면 '노오력' 하는 사람들만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나고, 반성하고, 자기를 뛰어 넘어야만 스타가 될 수 있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늘 예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을 통해 좀 더 자신을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귀를 찌르는 음향, 커다란 LED 화면, 화려한 조명 없이도, 평소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영상 찍던 모두가 함께 모이면 유유자적하게 무대를 준비하고, 그 위에서 멋지게 놀아 볼 수 있습니다. 인디뮤지션들이 모인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에서 공연기획의 실재를 경험해 보세요.</p> <p>·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yoojasalon.net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yoojasalon - 관련기사 : 한겨레21 1048호, "무중력 청소년들은 유유자적하기도 하지"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954.html</p>
<p>⑦</p> <p>한땀한땀 웨딩학과</p>	<p>대지를 위한 바느질</p>	<p>· 일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 그러나 그 단 한번을 위해 버려지는 드레스는 1년에 1,700,000벌! 한땀 한땀 정성으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강당을 근사한 웨딩홀로, 동네 미용실과 메이크업숍에서 꽃다발을 그리고 동네 떡집, 만두집, 갈비탕집에서 피로연 파티를! 여러분과 친환경적인 정성으로 동네에서 소박한 작은 결혼식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웨딩 디렉터를 꿈꾼다면, Would you marry me?!</p> <p>·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www.ecodress.net/ - 카페 : http://cafe.naver.com/ecowedding - 관련기사 : 한땀 한땀 '에코 웨딩드레스'... 이효리 부부도 고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2801032127163001</p>
<p>⑧</p> <p>WORK & LIFE학과</p>	<p>디자인 스튜디오 바톤 (ba-ton)</p>	<p>· 친구 같은 부부와 가족 같은 친구가 모여서 만든 회사로, 그래픽 디자인과 웹개발을 주로 합니다. 밤샘으로 초취해진 얼굴과 집에서 가족과 밥해 먹어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IT/디자인 업계는 잊어주세요. 우리 학과에서는 올 겨울, 전문가에게서 전문성 잘 뽑아내는 법을 배우고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들을 만나서 실제 그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며 커리어워크가 끝난 뒤에도 생산적이고 행복하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밌는 일을 벌여볼 예정이에요. 그럼 겨울에 만나요. ' /</p> <p>·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ba-ton.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studiobaton - 관련기사 : 가족과 회사를 차리는 일 http://www.huffingtonpost.kr/hanseong-kim/story_b_5058237.html</p>

<p>⑨</p> <p>지구를 부탁해 학과</p>	<p>십년후 연구소</p>	<p>· 눈앞에 당장, 지금이 아니라 십 년 후를 생각합니다. 십 년은 질적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 A에서 B가 되는 시간, 애벌레가 매미로 탈바꿈하고 산이 강이 되는 시간인데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맞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환경 개선에 앞장서 볼 예정입니다,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것만으로 여름철 건물 온도가 낮아져 도시 열섬 완화에 기여하게 되는 화이트 루프 효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기술과 이를 직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설계해봅니다.</p> <p>· 관련자료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angeul.t - 화이트루프 캠페인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coolrufseoul - 관련기사 : “여러분, 10년 후 뭐 할래요?”...십년후연구소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3&year=2015&no=752258</p>
<p>⑩</p> <p>무아지경 건축학과</p>	<p>무아건축</p>	<p>· ‘디자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게 일과 삶은 예술이 된다.’ 건설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일상과 삶의 현장을 디자인하기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하고 사는 데 같이 애써볼 겁니다. 도시, 건물, 시설, 디자인, 설치 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여러분과 같이해 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만의 길을 찾을 겁니다. “길을 찾아 나선 자에게만 그 길은 나를 향해 마주 걸어온다.”</p> <p>· 관련자료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wangaedemyungsa/ - 관련기사 : “증명사진,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351111 - 관련기사: <Designer's Cut> 4인의 디자이너를 만나다. “예술촌 사는 디자이너들의 사정” 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detail_view.asp?pagenum=1&temptype=5&page=1&menu_idx=152&master_idx=16534&main_menu_idx=2&sub_menu_idx=26</p>

성과

커리어워크의 주제는 “두 번째 전공”이었다. 4일 동안 분야별 직업 멘토와 또래 청소년들이 만나 함께 대화하고 작업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와 협업의 즐거움을 나누고,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힘을 얻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4일 동안 현장탐방과 멘토와의 만남, 일의 경험이 유기적으로 잘 엮인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깊고 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기존에는 총괄기획자가 10개의 팀을 선별하고, 해당 팀은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외부 멘토를 따로 섭외해 청소년들과 만났기 때문에, 일의 기획과 실제 경험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하여 올해는 10개 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 전공”이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여 청소년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미팅을 하였다. 그 결과, 해당 팀이 보다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은근예술공연학과”의 경우, 간간 팀과 활동했던 인디밴드나 예술가를 멘토로 초대해 청소년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를 만들고, 작은 카페에서 자신들만의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했다. “기존에는 대형 기획사나 대중적으로 성공한 음악 스타들을 섭외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옷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함께했던 '유자살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팀 내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찰

4일간의 캠프를 마친 후 받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참가자가 “기간이 짧아 아쉽다” “속박 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진로직업체험캠프이기에 일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와 의미를 현장 중심으로 체험 하다 보니,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화 인턴십이나 잡쉐도잉(job shadowing)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일정이었다. 그러나 향후 자신이 임하게 될 직업과 일의 세계를 직접 체험한다기보다, “진로 감수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시간으로는 적절한 일정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post 캠프 과정이 설계된다면 단계별 설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직업 세계로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설문 분석 결과, 고교생이 진로에 있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결정 :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다', '수단 :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각각 26.3%)로 가장 높고, '진학 :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이다'(21.2%) 등의 순이었다. 참가자 두 명 중에 한 명(46.8%)은 이전에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넘쳐나는 진로 프로그램에 피로해진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경험과 만남을 제공하는 캠프를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소비되는 '직업'이 아니라 '일'을 통한 경험과 관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 '진로'에 대한 정해진 답이 아닌, 진지한 만남과 대화로 답을 만들어가는 캠프가 되어야겠다.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넘어서 일의 가치와 비전, 생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진로에 대한 생각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으로 배우는 금융, 기계, 전자 등의 이공계 분야 역시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적정기술과 만날 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창의적 상상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커리어워크를 진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좋아하고 잘할 것 같은 일"의 영역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직업군"에 대한 상상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정 설계를 보다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공이 아니어도 꼭 다른 것을 못하는 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시키고 배우는 것만 하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건축을 도면에 작성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 수 있어 좋았어요.

_무아지경 건축학과 참가자 회고 중

“공연이 너무 좋았고, 다른 팀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4일이 길 줄 알았는데, 너무 짧았어요.”

_은근예술공연학과 참가자 회고 중

“맛이 아니라 맛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_연애요리학과 참가자 회고 중

“지쳐있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열정 넘치게 (힘내세요!)”

_기승전장사학과 참가자 회고 중

“저는 완벽주의자라 조금만 틀려도 다시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친구들과 협업하는 것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완벽함이 아니어도 괜찮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달리 완벽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기했어요.”

“나에게 두 번째 전공은 ‘의사소통에 대한 핵꿀팁?’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보니 괜찮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BLANK와 같이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두 번째 전공은 ‘우리동네고고학’에요. 나도 훗날에 꼭 우리 동네에 동네를 위한 공간을 만들 거예요”

_우리동네고고학과 참가자 회고 중



more info

1) 기사

- '삶의 기술' 배우는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TBS 방송> 2016.01.14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30597

- 하자센터, 12~15일 특성학교 청소년 대상 진로캠프 '커리어워크' 개최

<이슈앤뉴스> 2016.01.11

<http://www.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36>

(이슈와 뉴스 외 전문기재 120건)

2) 영상

- 결과보고 영상 <https://vimeo.com/154258670>

- 현장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151987877>

2015 스프링캠프

개요

성인 시기를 눈앞에 둔 고3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겪는 심리적 부담과 스펙 경쟁 스트레스에서 눈을 돌려 자기 삶을 스스로 구성할 줄 아는 감성을 길러주는 캠프

기획의도

수능 이후 여러모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열아홉 청소년들. 자율학습, 영화를 보면서 킬링타임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등 학교에서도 수능이 끝난 고3들에 대한 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기도 하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놀이' '여행' 등을 꼽았는데, 이것은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쉼과 여유를 찾고 싶다는 바람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올해 스프링캠프의 중심 맥락을 '여행'으로 잡았다. 열아홉에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시간이자, 20대로의 첫 시간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고 돈으로 소비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게 하지 말자고 생각했고, 여행 역시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보지 못할 곳, 돈이 없어도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혹은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곳, 그리고 그곳을 돈이 아닌 정성과 애심으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 당장 중요한 '대학 진학'과 '학과 선택'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그 선택의 시기를 거쳐 온 선배들이 결국 그 시간을 거쳐 오면서 생각하게 된 나름의 지혜들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생존적 삶을 고민하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과 만나며 동료로 만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공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모여드는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여전히 열아홉의 청소년들도 그들 나름의 '생계'인 입시를 위해 치열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 위해 고민해야 하지만, 혼자만 고립되어 허덕이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살아있는 삶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5 스프링캠프를 기획했다.

- 사업 이름 : 스프링캠프
- 대상 : 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12월 3일 ~ 5일
- 참가방법 : 온라인 아카이브 신청
- 참가비 여부 : 무료
- 장소 : 하자센터 및 활동현장
- 총 사업비 : 8,027,660원
- 총 참여인원 : 27명(실인원) 81명(연인원)

20대를 준비하는 여행 콘셉트로, <여행준비 - 경계넘기 - 여행공유> 등의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간/공간/관계'의 키워드를 맺고 푸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활동명	강사 / 활동팀	주요내용
여행준비 :미팅	하자 판돌	팀별 팀워크를 높이는 아이스브레이킹 캠프 전체 진행 일정 공유
사람책 읽기	십년후 연구소 김진선	자기 경험을 토대로 10대들에게 20대 준비를 풀어내는 선배 이야기
하루여행: 공간책과의 만남	문화로놀이짱 배다리씨 플러스마이너스 1°C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 청년선배들을 만나면서 10대의 시간을 회고하고, 20대에 정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
우리들의 20대 응원파티	하자 판돌 / 청소년	이들간의 활동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공유, 청년 선배들의 블레싱이 함께하는 20대 응원 파티

성과

팀별로 나누어져 활동했던 하루 여행, 하루 여행지는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 의도했던 19살의 고민과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10대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소감들이 많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애주기를 돌아보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응답하라 1997'과 여행책을 공유하는 쇼하자 시간은 청년멘토와 판돌들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배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보다 풍성해졌다. 참여 청소년 27명은 3일간의 캠프 일정동안 출석을 유지했고, 사후 설문지에서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주었다. 이들은 캠프가 끝난 후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준비한 <독하자>와 <송년하자>를 통해 하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으며, 활동팀 중 한 곳이었던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의 음악창작수업을 통해 숙원원을 다시 찾으며 10대 마지막 날들을 여백 없이 채워갔다. 한 트랙만을 바라보지 않고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스포링캠프의 의도치 못한 성과다. 이후에도 배다리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싶거나, 문화로놀이짱의 비밀기지를 찾고 싶다는 10대들의 바람도 이어졌다.



참여자 코멘트

수능 성적이 나오고 얼마 전 추가 합격 전화를 받기까지, 그 16일 중 하자에서의 3일은 제 10대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달래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야"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야"라는 말이 더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यो. 하자에서 함께하는 동안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열아홉 끝자락에 맞는 작은 행운이었어요.

인천 배다리마을에서 만난 배다리씨 6699님, 보리님, 이야기님은 '남을 이길 능력'보다 '남과 다르게 살 감당'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세상은 아마 이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남을 이길 능력'을 키우길 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한 배다리씨들이 참 부러워요.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안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있으니 남들에게 떠밀리지도 않는 거겠지요. 배다리씨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이어갈 이야기에 저는 또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수능 때문에 유예해왔던 고민들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하자에서의 3일은 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줬다고 하기보단 오히려 고민을 더 없혀주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ㅎㅎㅎ 다만 하자를 다녀와서 확실해진 한 가지가 있어요. 고민은 절대 나쁜 게 아니란 것. 오히려 고민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이 더 불행한 쪽 아닐까요? 고민은 '내'가 주어가 되는 행동입니다.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일 거예요. 진심을 다해 삶을 사는 사람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 부자로 살 계획입니다. 그 고민을 하자에서 함께 나눌 기회가 모쪼록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봐요!

배다리팀 싨초



성찰

‘여행’이라는 콘셉트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은유적 여행이라면 너무 짧고,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3일간의 일정에 ‘여행’을 키워드로 모든 활동을 표현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일정을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끌고 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청소년들은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진짜 흔히 생각하는 ‘여행’을 상상했고, 스프링캠프에서 선보인 여행은 느릿하고 생각할 여유가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청소년들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연. 올해 스프링캠프는 ‘여행’에 대한 전체 키워드로 진행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언어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담아내는 의미는 청소년들의 언어를 통해서 의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망

2013년 스프링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의 참가신청 글 중에 “이제는 고3 수험생이 아닌 열아홉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문장이 있었다. 입시만을 위해 뛰었을 것 같은 고3 수험생. 그 꼬리표를 떼고, ‘열아홉 살 청소년’으로 보내는 10대의 마지막 시기를 충분히 마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시공간을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앞으로 마주할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의 준비과정으로서의 도착점이자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시작을 열었다. 스프링캠프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닫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하고자 마련되었고, 확실히 교육 공백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실 안의 문제들이 지역과 소통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아져야 할 것이고, 수동적으로 달려왔던 교육의 트랙을 벗어나 스스로 길을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플래비에서 배움의 과정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스프링캠프에서 10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처럼, 앞으로 다수의 학교 현장과의 협업 과정에서 만나 하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이들이 하자를 졸업현장으로 삼고, 언젠게 기댈 수 있는 지지기반이 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more info

1)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하자센터, 12월 3~5일 수능 끝낸 열아홉살 청소년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실시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1132>

- [아띠 참 신문] 하자센터, 19살 청소년 대상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실시
 12월 3~5일 전환기 청소년과 함께 도시형 캠프 프로젝트 진행
<http://www.atticha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1>

- [뉴스닷] 하자센터, 12월 3~5일 수능 끝낸 열아홉살 청소년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실시
<http://press.newsdot.co.kr/newsRead.php?no=811132>

2) 영상

활동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148869928>

2015년 청소년 토요진로학교

개요

‘청소년 토요진로학교’는 공공의 아젠다와 개인의 관심이 만나는 주제에서 출발하였고, 통합 활동을 통해 짧은 기간이나마 삶의 태도를 고민해보는 프로젝트형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주5일제 수업,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전환학년제 등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이 변화해 가며 증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수요로 인해 토요진로학교는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사고와 감각이 유연한 중등 연령을 주 대상으로 하여, 대안적 진로 설계에 대한 시도를 해왔다. 각종 검사와 특강, 단순체험을 벗어나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주제 중심 통합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진로교육의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타자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면서 세상이 파괴되어 감을 알고, 또 그것이 나/우리의 상황임을 안다면, 나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며 일상을 만들지 고민해보자. 작은 행동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진로(삶)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내 손으로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쌓아나가자.”

- 사업 이름 : 청소년 토요진로학교
- 대상 : 일반 중학교 청소년(13~14세)
※ 프로그램별 주 대상 설정
- 기간 : 2015년 4월 4일 ~ 7월 18일
- 참가방법 : 전화 /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50,000원(재료비 포함)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9,400,825원
- 총 참여 인원 : 49명(실인원) / 568명(연인원)

프로젝트

총 12회차로 진행되었으며, 단회성 활동보다 밀도 있는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주제알기/입체적 이해/내가 할 수 있는 일 진행. 이렇게 3단계 구조의 워크숍 기반 활동이 진행되었다. 직업-직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로교육에 질문을 가지는 것으로 출발하여, 공공의 과제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현장 직업인'과 만남을 가졌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 경험', '몸을 사용한 협업', '타자의 어려움과 공공의 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적 일 만들기' 등에 대한 고민을 담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15 청소년 토요일(삶디자인)학교 시리즈 1

<버려진 동물을 위한 [___] 제작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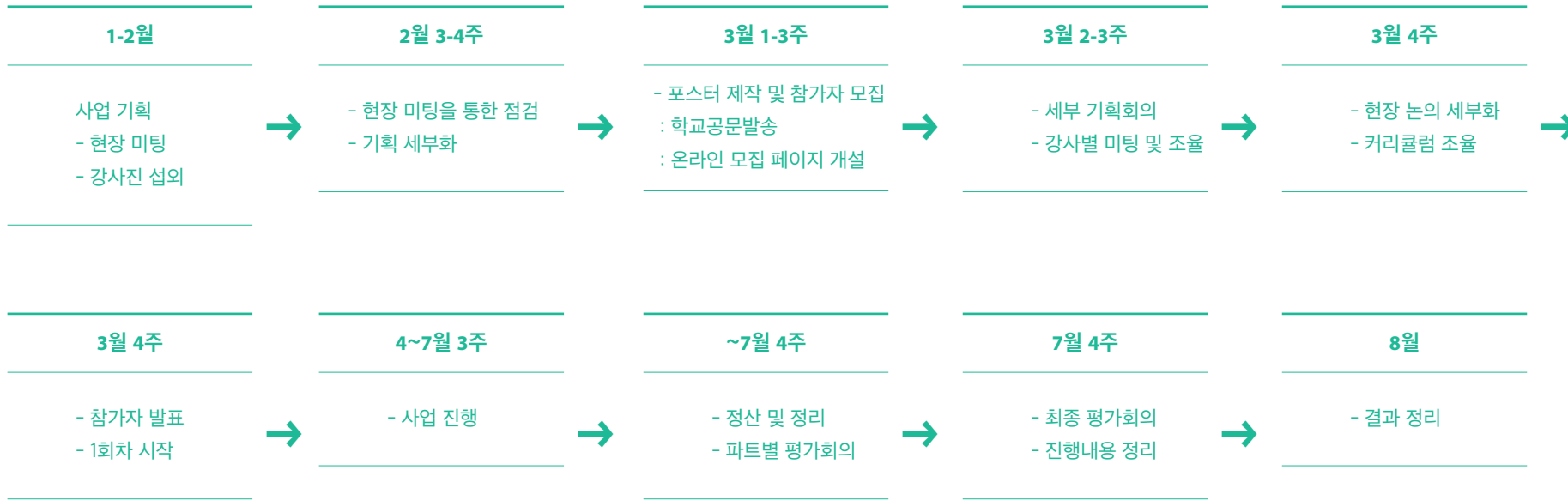
- 기간 : 2015. 4. 4 ~ 7. 18 (총 12회차)
- 대상 : 중학교 청소년(14~16세)
'동물에 관심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디자인과정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을 만나고 싶은/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
협력해서 일해보고 싶은' 청소년
- 장소 : 하자센터 및 각 활동현장
- 참여 인원(추진실적-총 인원): 청소년 29명 / 연인원 348명
- 결산: 사업비 집행액 총 6,118,185원

기획 의도

유기동물 이슈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관심이 있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타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재고할 수 있길 바라며 기획되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토요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특히 청소년들이 평소 관심을 가진 부분과 이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고리를 잘 찾아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했다. 다만, 단순히 주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진로와 삶 구성에 대한 관점 변화가 생기도록, 열려 있는 질문과 초점이 분명한 질문을 제시하고 함께 답을 찾고 의미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기획 부분에 있어 전문현장인 '카라'의 교육센터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2014년부터 더욱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세부 주제로 유지하였다. 길고양이는 도시에서 인간과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호'가 권장되는 유기견과는 달리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학대가 극심한 상태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동네 안에서 캣맘(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전문 강사, 함께 더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활동 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해보았다.



1) 사업진행절차



2) 세부목표

- 유기동물을 위한 물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몰입해봄으로써,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 및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 등을 발견
- 타자의 문제인 유기동물과 관련된 상황과 맥락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과 사회와의 관계를 고민
-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며, 일의 창출-변동-협업 등 직업과 일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경험
-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일하며 해결하는 과정 배치

성과

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으로부터 동기 부여된 사회참여형 프로젝트로, 나의 삶과 사회적 역할이 맞닿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 역할을 확장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적 과제를 도래와 함께 해결해보는 경험이 “진로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회고와 보안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버려진 동물’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부터 직접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하여 실행해 본다는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배움을 깨닫는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적 안정성을 찾는 것에 초점이 되기 쉬운 진로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제로 한 가지 프로젝트 안에 여러 진로 역량과 삶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주제였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더하여, 외부 전문 현장과의 계속된 논의와 협력을 강화했고, 인터뷰 프로그램과 보강된 참고자료(영상, 문헌) 등을 통해 공동학습, 리서치 과정 또한 보강되었다. 지난 2년의 사업에 더해져 발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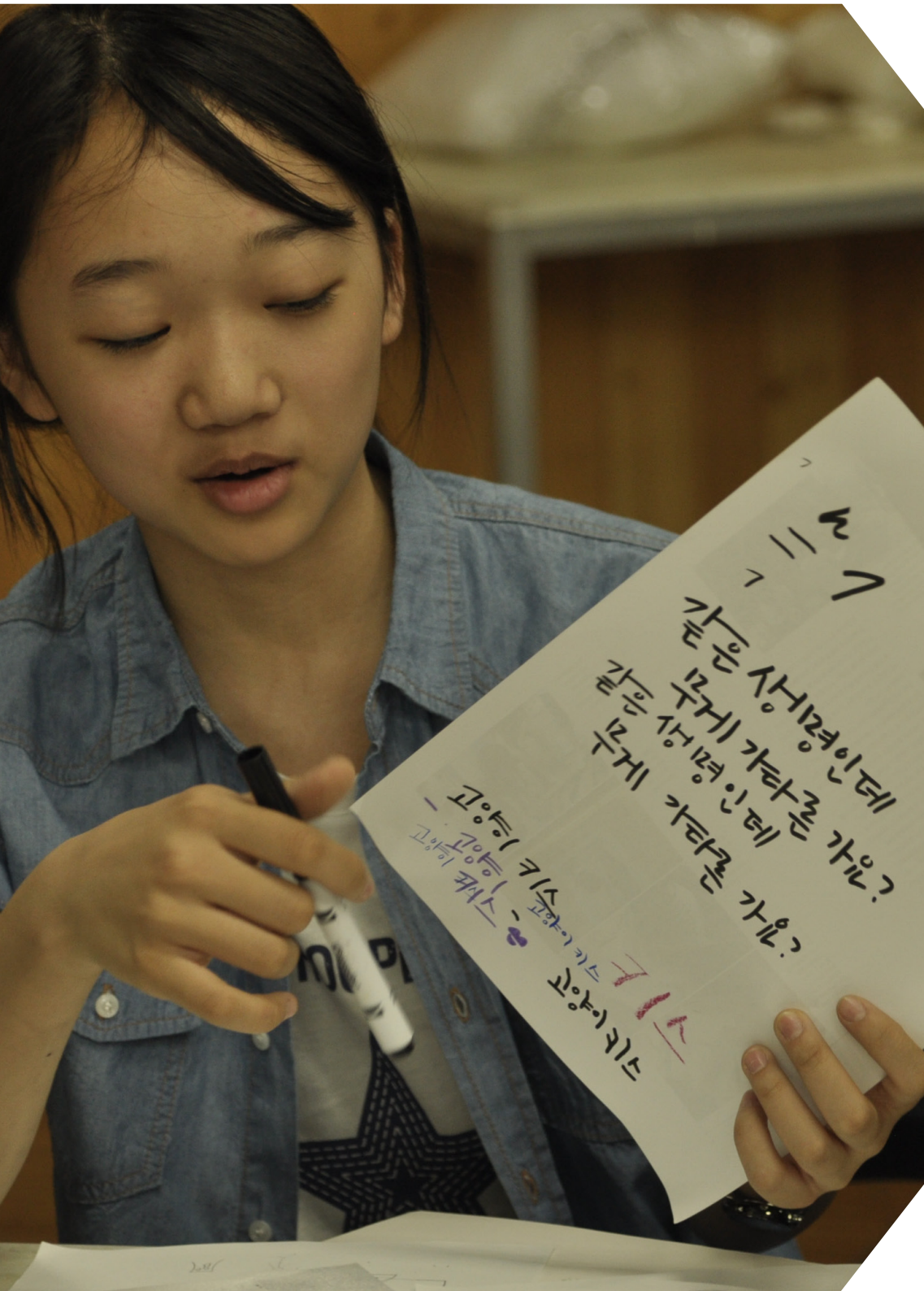
3년 차 사업이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였다.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로, ‘장래희망’이라고 하면 특정 직종에 관심을 가졌던 관점이 변화된 모습이다. 예를 들자면 ‘돈을 잘 버는 수의사’가 기존 장래희망이었다면, ‘한편으로 인내심을 갖고 버려진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수의사’로 바뀐 것. ‘나눔 디자인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디자이너가 너무 멋지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보며 멋지게 살고 싶다’ 등이 그렇다.

두 번째로, 이전에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뜻밖에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점이다. ‘친구들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뭐라고 할까 봐 잘 표현하지 못했던 미술 같은 것을 내가 잘한다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오래 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전달하는 것’ 등 특정된 기술로서가 아닌 생활과 관계 속에서 발휘된 역량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기준을 빌어 스스로, 그리고 서로의 좋은 점들을 발견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는, 처음에 어색해하던 협동에 익숙해지면서 ‘혼자 하면 절대 완성할 수 없을 것 같던 물건이 함께 하니 완성되었다’는 등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경험을 회고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캣맘 활동 등 자신이 사는 마을-동네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힘이 길러졌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포질, 바느질 등 막연히 지루한 단순 손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인데, '너무 지겹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에 집중할 때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내 힘으로 만든 것을 고양이와 사람들이 쓸 생각을 하니 뿌듯하고 정성이 더 들어갔다' 등 마음을 담은 손작업의 힘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전망

<청소년 토요 진로학교>는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청소년교육프로젝트 팀작업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시작 전 공동 모임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교육자로서 각각의 정체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제 의식을 갖고 수의사 등 특별강사 5인과 논의한 내용을 진행팀(담당자, 제작자,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가 등)이 함께 공유하였고, 때때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와 보완이 반영되며 청소년들의 경험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팀이 빠르게 논점을 공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와 카페 등을 통해 자료 공유와 의견 수렴, 공지사항 전달 등 참가자들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 안정적인 운영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소통의 경험은 참가자들이 향후 동아리, 커뮤니티 등에서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선/후배이자 동료들로 관계 맺으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하기도 한다.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강사와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게 되었고, 각각의 역할에서 청소년들을 관찰하는 기준과 질문 등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얻은 성찰을 나누며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방식을 시도한 점이 좋았으나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향후 이를 더 성숙하게 자리 잡아가며 콘텐츠를 완성해 가는 것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more info

- 1) 하자 뉴스레터 기사
- "삶을 디자인하는 토요진로학교, 시작합니다."
<http://www.haja.net/?p=10672>
- "타자와 함께 살기, <버려진 동물을 위한 < > 제작 프로젝트">
<http://www.haja.net/?p=11523>
- 2) 온라인 페이지
<http://cafe.naver.com/youthschoolhaja.cafe>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씨앗학교>


 하자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위탁을 받아
 국제인권교육, 환경교육
 등 총 7개 분야의 청소년 문화적응사업을 합니다.
 *운영시간 : 월요일 10시 ~ 19시
 화요일~토요일 10시~22시
 일요일 10시 ~ 18시
 *시설운영 문의 : 운영지원부 2층 207호
 하자 일곱가지 약속 : 권리와 의무
 1. 학교 깊은 숲을 먹거리, 재가 재료 등으로 잘 가다
 2. 나야 자랄 수 있어, 먹거리, 재가 재료, 인공 지능 안 된다
 3. 어떤 종류든 재가 재료도 받아들이고 잘 가다
 4. 내 위치(지역)는 내가 잘 가다 / 생애의 지역을 우리 가는다
 5. 정보 때문에 저사(저지) 없이, 재가/정보의 자유로 공부한다
 6. 일을 위한 생계를 가다 / 재가/정보 산출
 7. 먹거리, 재가 재료 / 재가 재료로 잘 가다

개요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중등 과정의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성적 부담,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으로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학기이다. 중등 6학기 중 한 학기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으로부터의 '자유'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대부분 1학년 2학기를 선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함께한 문래중학교 역시 1학년 2학기를 선택, 운영했다. 시험이 사라진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지난해 하자센터 선택 프로그램의 별칭은 '프리(free) school'이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 학생들은 가중된 성적 압박과 밀려드는 시험 부담으로 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한 학기 동안 시험부 격으로 주어지는 자유는 진로탐색 역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그저 '한 학기 잘 놀았다'는 쓸쓸한 자기위로와 더 큰 불안을 남기는 듯도 했다. 해서 올해는 학기제 이후에도 다양한 진로탐색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움의 씨앗'이 되는 경험을 기획하는 한편 후속 사업으로서의 '방과후 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을 병행하였다. 사업명 역시 '프리스쿨'에서 '씨앗학교'로 변경하였다.

- 사업 이름 : 씨앗학교
- 대상 : 문래중학교 1학년 24명
- 진행기간 : 2015년 8월 25일 (화) ~ 12월 17일 (목)
- 참가방법 : 학교 연계
- 참가비 여부 : 무료
- 장소 : 하자센터 외 연계 현장
- 총 사업비 : 2,972,800원
- 총 참여인원 : 648명(연인원)

1)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8/25 1회	8/27 2회	1일 / 3회차	3일 / 4회차	.	1일 / 9회차	3일 / 16회차	5일 / 17회차	1일 / 22회차	3일 / 23회차
		8일 / 5회차	10일 / 6회차	6일 / 10회차	8일 / -	10일 / 18회차	12일 (수능고사)	8일 / 24회차	10일 / 폐강
		16일 / 7회차	17일 / 8회차	13일 / 11회차	15일 / 12회차	17일 / 19회차	19일 / 20회차	15일 / 25회차	17일 / 26회차 (최종쇼하자)
		22일 (학교사정)	24일 (학교사정)	20일 (학교사정)	22일 / 13회차	24일 / 21회차	26일 / 취소		
		29일 (추석연휴)	.	27일 / 14회차	29일 / 15회차				

2) 모듬 구성 및 운영방식

구분	1회	2~24회	25회	26회
길고양이의 자취생활	공통 OT	프로그램 진행	쇼하자	학교 발표 준비
논픽션 뮤직		프로그램 진행	(하자센터)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p>논픽션 뮤직 (26회x2시간)</p>	<p>○목적</p> <p>-청소년들이 지역의 젊은 창작자들과 일상의 이야기로 공동창작물을 만들며 생활의 재미와 활력을 찾고자 함. -주체적으로 음악(극)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표현력, 예술적 감수성 함양</p> <p>○내용</p> <p>다짜고짜 합주, 내 맘대로 가사, 말로 하는 작곡 등의 활동으로 음악에 대한 두려움을 깬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부른다. 감정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작업을 배운다. 자신들이 만든 창작곡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구상하고, 직접 촬영 편집한다.</p>
<p>길고양이의 자취생활 (26회x2시간)</p>	<p>○목적</p> <p>-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접속, 구체적인 활동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이해하도록 함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동네'에서 다양한 세대와 접속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찾아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진로탐색 및 사회성 함양</p> <p>○내용</p> <p>길고양이를 매개로 나와 나의 주변 세계를 돌아보는 글쓰기를 한다. 도시의 길고양이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함께 공생활 방법을 모색한다. 나에게 누군가를 돌볼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글쓰기를 하며 잡지를 발행한다.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교사, 주민 등과 협력하여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실천한다.</p>

성과

문래중학교와 2년째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 측에게서 자주 들은 평가는 “수업시간엔 즐기만 하던 학생이 하자에서는 즐기는 모습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였다. 학교와는 다른 경로의 배움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드러내는 경험, 그 과정을 곁에서 응원해주는 어른들을 만난 것이 변화를 끌어냈다고 짐작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쁘지만 손재주가 좋은 친구를 새롭게 발견했고, 글쓰기는 서툴지만 노래방에서 신나게 잘 노는 친구의 매력에 빠지기도 했다. 길고양이 팀의 한 학생은 자기표현이 몹시 서툴고 활동에 늘 소극적이었지만 학교 주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케어활동을 나갔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고양이를 보살폈고, 캣맘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분을 만났을 때는 먼저 연락처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적극성과 사교성을 보이기도 했다. 성적 위주로만 평가되던 학교에서와는 다른 기준과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감춰진 재능은 물론 친구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행동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가진 영향력을 작게나마 확인했을 것이다.

전망

자유학기제는 인근 지역의 중학교들과 한 학기라는 비교적 긴 호흡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서의 하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생활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하는 갈등이나 긴장, 분노 등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자율작업장으로서, 공방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모임, 토요학교 등의 후속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해 볼 수 있겠다.

more info

1)영상

논픽션 뮤직크 뮤직비디오 영상 유튜브 링크

<http://youtu.be/ZfRIYjWmFyw>

<https://www.youtube.com/watch?v=O-avFQKATJo>

<https://www.youtube.com/watch?v=hQWZu8dHKOU>



마을형 방과후 학교 '수상한 식탁'

- 사업 이름 : 마을형 방과후 학교 '수상한 식탁'
- 대상 : 14~16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참가방법 : 개인 참여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및 외부 현장
- 총 사업비 : 6,061,700원
- 총 참여인원 : 760명(연인원)

개요

마을형 방과후학교 '수상한 식탁'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즐거움을 찾은 중등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생각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을 때 찾아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과정이 고군분투하며 누군가를 이기고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로 만나고, 때론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나는 삶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부제로 사용한 '수(手)상(想)한 식탁'은 손(手)으로 구현하는 즐거운 상상(想)의 시간, 공간, 관계를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움켜쥔 손에서 텃밭을 가꾸며 요리하는 손, 목공으로 간단한 물건을 만들고, 자전거를 수리하는 손으로 옮겨갔다.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다양함을 상상하면서 스스로가 주변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배움과 삶이 분리된 현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획된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부모가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1, 2학기를 통틀어 총 4회에 걸친 학부모 모임을 진행하였다.

진행

사업기간 : 2015년 3월 10일 ~ 12월 19일

- 1학기 : 2015년 3월 10일 ~ 7월 18일 (매주 화, 목, 격주 토요일 총 42회)
- 방학 모임 : 2015년 8월 12일 (1회)
- 2학기 : 2015년 9월 10일 ~ 12월 19일 (매주 화, 목, 격주 토요일 총 36회)
- 부모 모임 : 2015년 7월 18일/ 9월 10일/ 11월 19일/ 12월 19일 (총 4회)

성과

이른 시기부터 짜인 스케줄을 바쁘게 소화하거나 진학 경쟁에서 일찌감치 좌절감을 겪게 되는 획일적이고 서열화 된 교육에서는 배움의 기쁨과 함께 돌보며 성장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누리기 힘들다. 방과 후 학생들 역시 평가를 두려워하는 모습, 잘하지 못할 거 같으면 뒤로 빼거나 시도조차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신나게 놀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은 피씨방과 노래방밖에 떠올리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재밌는 일을 찾아보려는 시도와 용기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세 시간의 짧은 만남이지만 참여 청소년들은 방과 후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환경과 성향을 가진 또래 청소년들을 만났다. 함께 식탁을 차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자극받고 배우는 모습이었다.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들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밥을 먹으면 괜히 도태되는 기분이 드는데 함께 어울려 밥을 나눠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기분이다”라고도 했다. 간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친구들을 먼저 챙기는 청소년, 학교에서의 힘든 일들을 상담해오는 청소년, 활동 시간이 아님에도 찾아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도 생겼다. 방과 후 학교 활동 이후 스스로 학교 친구들을 모아 학급 문집 공모전에 참여한 청소년(양파, 환자)도 있었다. 참여 청소년들의 부모는 “제대로 노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피곤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자 방과 후는 즐겁게 돌아온다.” “집에서도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활기가 생겼다.”고 한다. 문래중 교사는 “학교에서 말이 없던 학생이 방과 후 활동을 시작하면서 즐겁게 자기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도 평가했다.



전망

1학기에는 참여 청소년 전원이 제도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2학기에는 홈스쿨러 학생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제도권 학생들의 경우 평일에는 학원이나 성적을 위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상한 식탁'과 같은 프로그램 참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소 부담인 듯했다. 그러나 홈스쿨러 학생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평일과 주말에 또래 청소년들과 모여 활동하는 호흡에 꽤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대안교육과 제도권 교육 사이에 작은 전환적 틈새를 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방과후학교는 제도권 학생과 홈스쿨러들이 적절히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평일과 토요일 모임의 횟수와 강도를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올해는 방학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기 참여 청소년들이 다음 학기를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필요와 가능성이 보임에 따라 추가 진행하였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 청소년들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정과 형식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을형' 프로그램의 장점일 것이라 생각된다. 중등 시기의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고민과 난감함을 서로 나누며, 새로운 삶의 방향과 배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성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활동 지원

- 사업 이름 : 청소년 활동 지원
- 대상 : 14~24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참가방법 : 신청서 접수
- 참가비 여부 : 없음(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및 공간 지원)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1,050,000원
- 총 참여인원 : 508명(연인원)

개요

최소 3인 이상의 청소년 팀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소년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과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일상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동아리 활동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정	활동 내용
1월	청소년 동아리 <DJ하자>, <랩하자> 결성(2014년 계속 활동)
3월	청소년 동아리 <미소> 결성 <랩하자>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미소> 일일 워크숍 4회 진행
4월	청소년 동아리 <탈핵상영관> 결성 <미소>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5월	청소년 동아리 <레인보우> 결성 <탈핵상영관> 탈핵 상영회 8회 진행 <미소>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레인보우>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DJ하자>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6월	<미소>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DJ하자, 랩하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8월	청소년동아리 <힘껏밟자!> 결성 <미소> 일일 워크숍 4회 진행 <레인보우>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9월	<미소>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레인보우>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힘껏밟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10월	<미소>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DJ하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랩하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힘껏밟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12월	<미소> 미소와 함께 송년의 밤 행사 자체 진행

※커뮤니티 활동지원은 시기상 진행되지 못하여, 동아리 활동으로만 진행됨

성과

청소년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시작되었다. 올해의 성과로는, 4개의 자발적 동아리가 새롭게 결성되었고 청소년들의 자체적인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4년에 이어서 DJ동아리와 랩하자 동아리가 꾸준히 활동을 지속했고, “혹이심”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여서 새롭게 결성된 “미소”동아리가 올 초반에 결성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자전거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레인보우>와 <힘껏밟자!> 팀이 자전거 공방을 중심으로 함께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활동을 고민하는 등 자발적인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 현재 하자센터 작업장 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들이 탈핵을 이슈로 <탈핵상영관> 팀을 결성하여 탈핵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자신들이 직접 고른 영화로 상영회 및 세미나를 하며 하자를 오가는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열린 대상들과 소통하기도 하였다.

전망

올해는 기존 활동하던 동아리를 포함해 총 6개의 동아리가 꾸준히 활동을 하였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기획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각 동아리마다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뚜렷히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몇몇 동아리는 하자와의 접점이 잘 발견되지 않았고 주 활동이 주말에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활용이나 자원 활용에서 원활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 동아리로 등록이 된 팀들이 하자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 주말 이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 더불어 내년에는 일일직업체험, 토요일학교, 진로캠프 등으로 하자와의 인연을 맺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청소년 멤버십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점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 사업 이름 : 청소년운영위원회
- 대상 : 14~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참가방법 : 온라인 신청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2,000,000원
- 총 참여인원 : 108명

개요

하자센터에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하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이 밖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원은 시설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청소년 인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해오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기획 의도

매년 청소년활동의 참가자는 증가되었지만 단회적인 프로그램 위주가 많아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기회가 적은 부분도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꾸준히 하자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 선발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해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월 1~2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진행하며 활동의 리듬과 멤버십 형성을 위한 기획을 준비하였다.

연번	날짜	구분	내용	참여인원
1	2015.03.21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 및 역할안내 ○ 하자센터 소개 및 운영위원회 선발 	14명 (청소년7, 지도사7)
2	2015.04.4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장수여 ○ 놀토엑스포에서 비전력카페 부스 운영 ○ 밴드에서 공유하며 비전력에 대한 공유/스터디. ○ 4월 18일과 5월 2일, 오후 4시 놀토엑스포 준비 ○ 지각자 관련 규정 : 1시간 전 사유 공유시 인정 	13명 (청소년8, 부센터장1, 지도사5)
3	2015.04.18	임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력카페 구성 : 음료 만들기, 음악 플레이 ○ 발전용 자전거 3대, 유리컵 30잔 필요 ○ 카페와 책 판매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기부. ○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라는 책을 조사하고, 메시지를 뽑아 카페 공간구성에 활용 	9명 (청소년5, 지도사4)
4	2015.05.2	임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발전기 2대, 카고바이크 1대 등 총 3대 준비 ○ 책 장터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변경. ○ 놀토엑스포 준비모임 : 5월 8일 	9명 (청소년6, 지도사3)
5	2015.05.9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토엑스포 참여 ○ 다음 엑스포에는 자전거를 중심의 부스를 운영하기로 함 ○ 비전력 홍보물을 개시 ○ 역할배정, 프로그램 운영관련 논의 ○ 후기 남기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준비 ○ 다음 모임은 소풍으로 마무리 	15명 (청소년8, 부센터장1, 지도사6)
6	2015.05.30	임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토엑스포마무리, 이후 계획에 대한 내용공유 ○ 향후 프로그램 의견 : 하자알기, 하자 내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타 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 등 	10명 (청소년6, 지도사4)
7	2015.07.11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준비 : 팀 리빌딩을 하며 멤버십 향상 ○ 지각, 결석자 제명 논의 ○ 하반기 활동내용 구성 	8명 (청소년6, 지도사2)

8	2015.07.25	임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인 워크숍 계획 구상 ○ 난지 캠핑장 섭외 및 예약 ○ 오전 팀빌딩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7명 (청소년6, 지도사1)
9	2015.08.10 - 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을 위한 팀빌딩 워크숍 ○ 야외 워크숍을 통한 팀웍 다지기 	9명 (청소년7, 지도사2)
10	2015.08.29	임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 및 교육에 대한 열린 토론 	6명 (청소년3, 지도사3)
11	2015.09.12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에 대한 자기 기획서 작성하기 	6명 (청소년4, 지도사2)
12	2015.10.24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과제 최종선정(토크하자, 사진관련) ○ 운영위원 추가선발(송윤지, 이옥석) ○ 자전거면허시험참가(하자작업장중등운영) 	7명 (청소년7, 지도사2)
13	2015.11.07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과제 '토크하자' 주제를론(스무 살의 버킷리스트, 행복의정의) 	7명 (청소년4, 지도사3)
14	2015.11.14	정기회의 교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활동(아하성문화센터동아리DAY참석) ○ 하반기과제 '토크하자' 주제를론(관계) 	6명 (청소년4, 지도사2)
15	2015.11.21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과제 '토크하자' 행사 세부기획1(개요, 내용, 진행방법 등) 	8명 (청소년6, 지도사2)
16	2015.11.28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 과제 '토크하자' 세부기획2(주제에 따른 대본, 운영, 신청서, 포스터 제작) 	9명 (청소년7, 지도사2)
17	2015.12.12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 과제 '토크하자' 세부기획3(이야기 길잡이 대본작성, 홍보포스터 부착) 	4명 (청소년2, 지도사2)
18	2015.12.19	토크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 '토크하자' 진행(송년하자 기획 및 진행 논의) ○ 약 20명 참석, 4가지 주제로 주제 토론 	12명 (청소년7, 지도사5)
19	2015.12.29	송년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활동 '송년하자' 진행 ○ 약 40명 참석, 하자활동 소개 및 레크레이션 	12명 (청소년7, 지도사5)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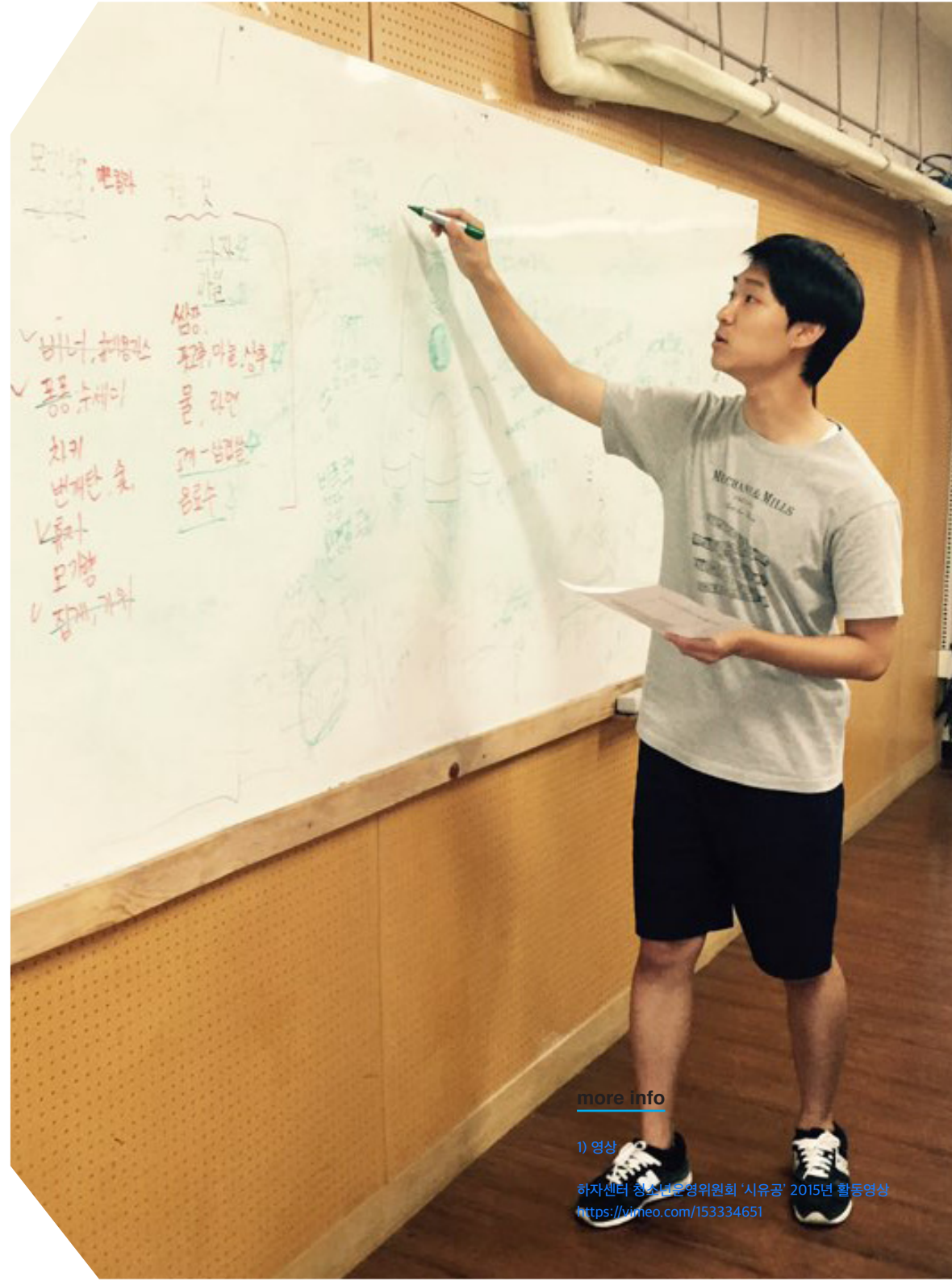
같은 또래가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서인지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았다. '토크하자'라는 프로그램에는 약 2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운영위원들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다양한 주제의 고민과 이야기가 오고갔다. 마지막 기획활동인 청소년들을 위한 '송년하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관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덕분에 도목도목이란 목공 동아리가 생겼고 2016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성찰

모집 시기에는 홍보부족 및 홍보효과의 한계로 모집 자체가 어려웠다. 단순히 학교 공문 발송, 홈페이지 공고문으로는 학생들에게 활동에 대한 매력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첫 번째 활동 프로그램인 놀토엑스포에서는 청소년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야외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미리 준비한 재료가 떨어지고 프로그램 내용들을 생각했던 것 만큼 충분히 알리지는 못했지만 행사의 규모에 대한 충분한 사전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진로선택(취업 및 진학)으로 인한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평균적으로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요 위원으로 활동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무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스케줄을 잘 조정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하다.

전망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단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다음 모집 때에는 기존 운영위원들이 모집 및 선발과정을 기획, 참여하며 예비 운영위원들에게도 적당한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 한다. 잦은 회의와 하반기 진로선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의 문제는 년 초의 집중 워크숍을 통해서 1년 사업을 함께 정하고 선택/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인 협력기관(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하성문화센터)과 함께 시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갈무리하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전하는 홍보활동이 병행될 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의 폭과 참여의 기회가 확장될 것이다.



more info

1) 영상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시유공' 2015년 활동영상
<https://vimeo.com/153334651>

교육협력사업

- 사업 이름 : 교육협력사업
- 대상 : 14~19세 청소년 및 학교, 단체, 공공기관 등 협력이 필요한 주체들
- 진행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참가방법 : 학교 및 기관 간 협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
- 참가비 여부 : 대상별 상이
- 장소 : 하자센터 및 활동현장
- 총 사업비 : 110,000원
- 총 참여인원 : 1,704명(실 인원)

개요

하자센터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다양한 단위의 협력 파트너들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활동방식과 내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기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며 강연, 축제 지원, 워크숍 등 형태는 다양하다. 대상과 내용적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대상
학교 등	파주중, 문래중, 대원고 등 학교 파트너와의 협력사업	중 · 고등 청소년
공공기관	교육청 연계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연수	교사
	놀토엑스포, 서울청소년축제 등 지원사업	청소년 및 일반시민
기타	기업, 단체 등 비상시적으로 요청되는 협력사업	청소년 외

기획 의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 정책 등 청소년 현안에 대한 과제를 풀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요청이 있어왔다. 협력주체들의 대상과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활동을 기획해야했다. 이와 같은 교육협력을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단골파트너를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프로젝트명	협력주체	내용																				
놀토엑스포	서울시	<p>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버리고 놀토를 즐기자!’는 주제로 진행됨. 개막식에서는 ‘비전력’을 주제로 이동하는 카고바이크와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바이크 카페를 운영함. 주말엑스포는 청소년토요진로학교, 직업체험심화형, 마을형방과후학교 등 청소년진로프로그램과 작은달시장이 펼쳐짐으로써 토요일에 다세대가 어울리는 장으로 구성함.</p>																				
주섬주섬 프로젝트	서울역쪽방상담소 도시연대	<p>동자동 쪽방동네 주요 소통창구인 게시판과 주생활터전으로서의 협소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반을 선의를 가진 커뮤니티와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여 자생능력을 키우고 마을살이에 활력이 만드는 프로젝트</p> <p>결과물 : 게시판 3개 제작 설치</p> <p>추진일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일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3월 20일</td> <td>서울역 쪽방촌 현장방문</td> </tr> <tr> <td>3월 25일</td> <td>주섬주섬프로젝트 _ 공유</td> </tr> <tr> <td>4월 8일</td> <td>프로젝트 기획회의</td> </tr> <tr> <td>4월 17일</td> <td>하자 공작단 현장 방문</td> </tr> <tr> <td>4월 3주차</td> <td>홍보 및 진행일정 공유</td> </tr> <tr> <td>4월 4주차</td> <td>게시판 제작 계획 관련 주민 공유</td> </tr> <tr> <td>6월</td> <td>첫 번째 게시판 제작 및 게시</td> </tr> <tr> <td>7월</td> <td>1차 프로젝트 평가</td> </tr> <tr> <td>11월</td> <td>중간 점검 및 사후 논의</td> </tr> </tbody> </table>	일정	내용	3월 20일	서울역 쪽방촌 현장방문	3월 25일	주섬주섬프로젝트 _ 공유	4월 8일	프로젝트 기획회의	4월 17일	하자 공작단 현장 방문	4월 3주차	홍보 및 진행일정 공유	4월 4주차	게시판 제작 계획 관련 주민 공유	6월	첫 번째 게시판 제작 및 게시	7월	1차 프로젝트 평가	11월	중간 점검 및 사후 논의
일정	내용																					
3월 20일	서울역 쪽방촌 현장방문																					
3월 25일	주섬주섬프로젝트 _ 공유																					
4월 8일	프로젝트 기획회의																					
4월 17일	하자 공작단 현장 방문																					
4월 3주차	홍보 및 진행일정 공유																					
4월 4주차	게시판 제작 계획 관련 주민 공유																					
6월	첫 번째 게시판 제작 및 게시																					
7월	1차 프로젝트 평가																					
11월	중간 점검 및 사후 논의																					

성과

올해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진행한 놀토엑스포, 도시연대와의 협력으로 진행된 주섬주섬 프로젝트 2가지이다. (그 외 학교협력 등으로 진행된 다수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제외함) 매년 진행되는 놀토엑스포는 예년과 달리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이 되었고, 그 이후 하자에서의 경험들로도 이어졌다. 주섬주섬 프로젝트는 '쪽방촌'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대상과 주제를 제작물을 갖고 접근해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갖고 있는 자신의 장점과 기술을 바탕으로 쪽방촌의 주민들과 협력하여 '주섬주섬' 만들어가는 소박한 프로젝트였고, 그것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 관심을 두고 작은 일을 함께 해보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애초 계획했던 제작물보다 많은 수의 제작물을 만들었고 현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성찰

본래 교육협력사업의 취지로 구성했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은 부족했다. 이미 학교협력은 다른 사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교육협력사업의 영역 안에서는 시범사업으로서 협력주체와의 실험을 해본다는 것에 더욱 방점이 찍혀있기도 했다. 주섬주섬 프로젝트의 경우, 초반 미팅과 소통 단계에서 확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시범 사업 이후 주체 기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갖지 못했으며, 각 주체들이 다소 소극적인 접근을 하였고, 청소년과 쪽방동네, 작업의 연결 점에서 현장을 경험 한 후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제 '봉사'로 불리는 활동에 대해 환기가 되었고 단순 봉사가 아닌 마을살이에 대한 고민과 접근,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으로서의 유의미성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활동의 기획이 필요하다.



전망

지난 해 공교육학교의 지속적 협력요청으로, 진로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협력의 주체들이 있었다. 대안교실이나 희망교실 등 학교 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주체로서 하자센터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다. 내년에는 이런 주체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학교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교실 안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식교과 중심의 공부 외에 다양한 진로의 루트를 만들고 감각을 깨우는 일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교실 안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학교와 함께 발맞춰 가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대상자 코멘트

프로젝트명처럼 공작단이 주섬주섬 무언가 만들고 있으니 당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다. 처음에는 무언가 공짜로 주는 건가 싶어 오셨던 분들도 마을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고 있노라 말하니 “진작 좀 하자! 멋지네! 내가 뭐 좀 거를 것 없나?”하시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셨다. 흔쾌히 자신의 집 벽을 게시판 자리로 내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셔서 보다 멋진 게시판이 제작되었다.

- 주섬주섬 프로젝트 참여자

more info

1) 하자 뉴스레터 기사

<http://www.haja.net/?p=12021>

2) 사이트

도시연대 홈페이지 <http://www.dosi.or.kr/newpage/page/13/>



하자 네트워크학교

- ◇ 하자네트워크학교
- ◇ 하자작업장학교
- ◇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 ◇ 로드스콜라
- ◇ 영세프스쿨

2015 하자네트워크학교

- 사업 이름 : 네트워크학교
- 대상 : 네트워크학교 재학생
(하자작업장학교, 영세프스쿨, 로드스콜라,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연금술사)
- 진행기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참가방법 : 각 학교별 입학전형에 따름
- 참가비 여부 : 학 학교별 수업료에 따름
- 장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7,646,590원
- 총 참여인원 : 1,292명 (연인원)

개요

하자네트워크학교는 학교이기도 하고, 학교가 아니기도 한 학교들이 모여 있다. 기존 제도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학교들이 하자센터라는 '일시적 자율공간'에서 함께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공공의 감각, 생태적 전환을 공유하며 종종 얽히고설켜 지내고 있다.

탈학교 10대 중심의 작업자와 시민활동가를 길러내는 하자작업장학교, 여행을 다니며 현장 속의 인문학을 몸소 배우는 로드스콜라, 요리를 통해 꿈과 자립을 실현하는 영세프스쿨. 10대 후반 자립의 시기가 오면 대면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연금술사학교, 음악으로 무중력 청소년들과 만나는 유자살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학교이다.

개요

개별학교를 넘어서 하자마을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공유지대' 안에서 배움의 공통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2013년부터 네트워크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하자마을에는 이렇게 지속적인 삶, 정보와 자원의 공유,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살기 같은 가치를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엮어 나가는 네트워크학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마스터클래스		#5	2월8일~2월 17일	999클럽	춤 매개로 몸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를 풀어가며 자신의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즉흥춤수업.
		#6	7월 13일~ 7월 22일	999클럽	춤 매개로 몸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를 풀어가며 자신의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즉흥춤수업.
기억의 자리	후쿠시마 추모의 시간		3월 11일	하자마당	재앙이 닦쳤던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자리.
	세월호 추모의 시간		4월 16일	본관 쇼케이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낭독을 함.
	고정희 추모낭독회	이 어둠마저 없었다면	6월 26일	하하하허홀	고정희추모기행이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면서 고정희 추모낭독회를 진행함.
인문학	탈경계인문학	문학 그곳을 찾아가다	3월 24일 ~ 6월 2일	999클럽	네트워크학교 학생들끼리 강의를 듣기 전에 모여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토론 길잡이를 하면서 2주에 한 권씩 정해진 책을 읽는 인문학 클래스.
	네트워크학교 특강	재난, 그 2년 후	7월 22일	본관 쇼케이스	이규호 선생님을 모시고 재난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과 국가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
학기말 파티		안녕하자	12월 13일	하하하허홀	네트워크학교들 간에 일 년을 정리하고, 돌아보며 학교별로 서로 중점에 두고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
네트워크학교 낭독모임		마을의 시인들	4월 7일 ~ 12월 18일	본관 쇼케이스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면서 마을의례, 행사들에 어울리는 시들을 골라 낭송하며 하자마을 곳곳에 시를 스며들게 만들고자 했던 시모임.

대상자 코멘트

마을의례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한 신입생이 “하자마을이 뭐야?”라고 묻자 옆에 있던 재학생이 “하자에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 사람, 학교, 단체, 어른들, 청년들까지 두루두루 모여 있어. 학교에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있는 것이기도 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뭔지 모를 든든함이 있네.”라며 하자마을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 인문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무척 신선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는 내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라며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알았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난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세계가 더욱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또 모든 네트워크학교 학생들이 모여 추모와 애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동으로 기억하는 자리에서 “혼자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 마주하기 힘든 일도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함께 애도하면서 나만 슬프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라며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성과와 전망

자공공아카데미, 탈경계인문학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각 학교들이 만나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것 보다도 강의를 듣고 난 뒤 학생들의 토론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서로 끊임없이 마주치고, 부딪히며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말과 생각의 자리를 만들며 새로운 사유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 또 입춘잔치, 시농제, 성년의 날, 김장잔치, 하자생일과 같이 하자마을에서 진행되는 의례에 각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참여하며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나가는 자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하자마을이라는 배움의 근거지를 확인하고, 단지 학교 안이 아니라 마을의 단위 안에 있는 학교임을 그곳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주민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추모, 세월호 기억의 시간, 고정희낭독회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네트워크학교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나가면서 우리의 호흡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의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의 학습내용을 마주칠 수 있도록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학교의 학생들 간에 어떤 일을 도모해 낼 수 있는 학습그룹들을 다져나가는 것도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의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자공공학교로서의 가치들이 조금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학교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근대적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둔 학교라는 형태가 아닌 작은 실험학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배움을 움직일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의 실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네트워크를 넘어 네트워크-학교라는 모델을 실험해 나가면서 새로운 학교모델-학습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둘 것인가, 개별 학교들의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별로 해소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해 나가며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다. 네트워크학교가 개별 학교들의 견고함을 너머 서로 들여다보면서 소통과 신뢰의 생태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more info

1) 사이트

<http://nschool.haja.net/>



하자작업장학교

하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는 제 4섹터의 창의적 공공작업자로 성장해갈 청소년들의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2001년 9월에 개교하면서 하자작업장학교 1기를 시작했고, 10년째 되던 2010년에 다시 2기로 이어졌다. 1기는 학교 밖에도 청소년이 있으며, 평생 지속할 즐거운 배움과 일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 스스로 밝히는 학교였다.

2기의 하자작업장학교 또한 1기의 하자작업장학교처럼 청소년들의 '학교 만들기' 기획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학교는 '배움이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살려내는 힘'이라고 믿는, 친구들이 함께 있는 '우정의 작업장'이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학교이다.

1. 중등과정(2년) : 손과 시간과 마음의 연결망을 만드는 '실과교실' : '우정'과 '협동'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은 자립과 상호 돌봄의 감각을 살리는 전환기 학교이다. 생활기술로서 버려진 자전거를 세상에 하나뿐인 자전거로 재생하고, 목공 연장들과 친해져 작은 목공일을 배우기도 한다. 인문학과 글쓰기, 노래짓기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 배운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한다.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실 공간이나 주변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종종 세계에서도 몇 개 안되는 모래강 내성천을 찾거나 내성천의 회복을 기원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산여린이학교와 (자전거/목공) 공방협력교실을, 성미산학교와 평창의 농장학교 농활을 했으며, 2014년에는 이에 더하여 영월의 강원도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와 진로/생태캠프를 진행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폭넓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었다. 2015년에는 목화프로젝트를 중심에 두고, 절기에 따른 학습, 손과 마음과 시간을 연결하는 공방활동을 진행했다.

하자작업장학교의 특별실과과정은 전환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이고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려 한다. 또한, 자립의 감각과 상상력을 키우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한다.



2. 고등과정(3년) : 불난 숲을 구원하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크리킨디학교' : '생태', '평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다양성, 함께 살기)

고등과정의 시즌2를 시작한 뒤 곧이어 목격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학교의 학습과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게 했다. 시즌2의 세 개 키워드는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력과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기 시작했다. 디자인, 영상, 공연음악, 춤 등의 예술적 매체를 배우고 익히되, '현미 네 흙(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인문적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2012년부터 시작한 SOS 어린이마을과의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13년에는 부안, 영광, 삼척, 밀양 등 우리 사회의 '에너지 지형'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시작했다. 버마와 메솫지역의 난민캠프로 현장학습을 가며 해외교류를 진행 중이고, 2015년에는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에 대해 고민하며 12월 파리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101개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3. 청년과정(2년) : 삶과 공동체의 회복resilience를 꿈꾸는 '전환기술작업장' : 자공공 (自助/ 公助 / 共助)

2013년에 시작한 청년과정은 '스스로를 돌보고 함께 살고 일하며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을 만들어 나간다.' 는 슬로건 하에 시작한 자공공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과정의 학습을 돕는 인턴 혹은 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농업을 실험하고, 적정기술(목공, 철공, 설계, 에너지, 살림의 기술 등)을 익히며 장인들과 타 지역의 청년들과 더불어 나와 이웃의 삶의 형식을 바꾸는 다양한 전환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2014년부터 적정기술 집짓기인 살림집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선박용 페콘테이너 3동으로 에너지자립건물을 짓고 가꿔가고 있으며, 세대를 넘는 지식과 경험의 지혜를 전수받고 알리는 일도 함께 진행 중이다.

more info

사이트

<http://productionschool.org>

<http://gapyear.productionschool.or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school>

비메오

<https://vimeo.com/haja>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 사업 이름 :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 대상 : 중학교 1, 2학년 연령대의 청소년(14-15세)
- 진행기간 : 2년 과정(연중진행)
- 참가방법 : 입학지원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동의서와 함께 제출. 입학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소하자 심사로 진행됨
- 등록금 : 한 학기 110만원 (1년 2학기운영, 급식비 제외)
- 장소 : 하자센터 본관 1층 104호 중등교실 외
- 총 사업비 : 207,653,158원 (서울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금 포함 하자작업장학교 전체사업비)
- 총 참여인원 : 5,886명 (연인원)

개요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은 우정과 협동, 자립과 상호 돌봄의 감각을 기르는 2년제 실과과정이다. 흙, 목공, 자전거공방에서의 작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삶을 돌보는 생활기술을 익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도에 개설된 후, 산어린이학교 중등과정과 목공방, 자전거공방 등 공방중심의 활동으로, 성미산학교 중등과정과는 농장학교 중심의 활동으로 협력교실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부터 강원도 영월의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와 함께 진로/생태캠프를 운영하여 또래 청소년을 폭넓게 만나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왔다. 2015년부터는 목화프로젝트를 중심에 두고 절기에 따른 학습, 손과 마음과 시간을 연결하는 공방활동을 진행했다.

기획의도

중등과정은 지난 2013년, 전환기사회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체인지메이커 훈련과정의 중등단계로서, 입시제도와 지식중심의 교과학습에서 벗어나 손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전환기'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과정으로서 출발했다. 중등과정이 시작한 첫해에는 당시 하자센터에서도 실험적이었던 실과중심의 중등교과과정을 구체화하고, 재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문화와 언어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시기였다면, 2014년은 첫 해의 경험을 기반으로 심화학습과정을 만들고, 실과활동을 통해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는지 힘껏 팔을 뻗어 확인해보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실과활동이 일상과 분리되어 도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2년의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실과활동을 통해 배우고 생각하는 과정이 생겨야 함을 알게 되었고, 2015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고자 한해살이 목화농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자전거-목공-직조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진행

목화농사의 시작은 2014년 1월, 하자작업장학교가 교육공동체 벗,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생협 등 여러 단체와 공동주최한 후쿠시마 현지 활동가 초청강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난 이후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환기 사회를 향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서, 공동체 재건을 위한 시민적 연대활동의 하나로,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농사와 목화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핵사고로 망가진 땅에서 더 이상 '먹는 농사'는 지을 수 없기에 시작한 새로운 농사가 바로 햇빛에너지와 목화농사였다.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업장학교와 국내 몇몇 현장에서 목화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같은 해 겨울, 대안교육연대와 하자센터 등이 공동주최하는 생활기술연수과정으로 <목화연애중>이라는 제목의 직조워크숍이 열려, 목화농사가 목공, 직조작업으로 연결되는 커리큘럼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등과정이 시작하고 2년간 실과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자전거, 흙, 목공수업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으로서 반복 진행되었던 종전의 방식을 지양하고, 목화농사라는 학기의 큰 흐름 안에서 다소 유동적이지만 시기별로 무게중심을 달리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시켰다.

자전거공방활동의 경우, 자전거면허시험제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1년 과제로 삼아,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들이 배우고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시험문제를 내고, 강습을 진행하고, 면허증을 제작하는 등의 작업을 했는데, 틈틈이 목화농사를 지으러 자전거 타고 노들섬의 텃밭을 오가면서,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새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다. 목공작업 또한 '리사이클'을 키워드로 가구나 소품을 만들던 작업에서 나무를 깎고, 베를 만드는 작업으로 전환되었다. 목화농사는 4월 파종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되었는데, 12월에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배운 것을 나누는 직조워크숍을 열었고, 목화농사를 내용으로 한 2016년도 글로비스 달력을 만들기도 했다.

성과

올해는 목화농사를 중심으로 여러 공방활동을 연결해나감으로써 '실과교실'의 의미와 방향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이다. '기술'이나 '공예'로서가 아니라, 삶을 돌보는 '생활기술'로서 개념이 자리 잡아갈 수 있었다. 예컨대 중등과정의 죽돌들 중에는 직조 장인이 되겠다거나 목공 기술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무언가 스스로 고쳐내고 만들어냈다는 것이 주는 기쁨이나 성취감을 아는 사람은 많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전거 타고 즐겁게 달릴 수 있고, 폐달을 밟는 만큼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가 이 시대 얼마나 친환경적인 탈 것인지도 안다. 목화농사를 짓고 직접 베를 만들어 천을 짜보면서, 옷감을 만드는 과정이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탄한 적도 있다. 이런 경험은 죽돌들이 자신의 생활세계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가꾸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손끝의 감각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남을 것이다.



성찰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올해 중등과정은 3년의 실험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등과정 초기에 구상했던 '전환기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가져가기 위해 1년제 특별실과과정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전환학년제',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듯이,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꾸리는 법을 알고, 더욱 넓은 시야에서 세상과 나의 관계를 조망하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2~고1 청소년들에게 '전환'의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등과정은 초기에 '전환기학교'를 컨셉으로 출발했지만, 초등과정에 이어 연속적인 '진학'의 개념으로 이곳을 선택하는 지원자/학부모들의 기대와 계속해서 만나야했다. 3년간 이를 경험하며, 일반적인 중학교과정이 담보하는 학습의 내용은 중등과정이 소화하려고 하는 범위와는 다른 것일뿐더러, 이제 막 청소년기를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연령대를 상향조정해 집중적인 1년제 전환기과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전망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전환학년제도로 <오디세이학교>가 문을 열었고,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를 벤치마킹한 <꿈틀리인생학교>가 다음 해 초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전환기청소년을 위한 학교는 이미 조금 생겨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하자작업장학교의 특별실과과정은 전환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이고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의 감각과 상상력을 키우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등과정에서 해온 목화농사와 자전거, 목공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6년도에 시작하는 하자-오디세이학교 및 다른 전환기학교들과의 유의미한 결합지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한다. 다른 전환기학교들과의 연결 속에서 전환기청소년층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차별화된 전환기학교 교육모델로서의 실험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대상자 코멘트

아래는 중등과정 두 번째 졸업생들의 졸업에세이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실과교실에서 배운 것은 내 손으로 주변에 버려진 것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과교실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낭비를 하는지 주변에 버려지는 자전거,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하자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물건이 버려지는 것을 몰랐다. 버려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좀 고치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냥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목공을 배우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나를 뿌듯하게 했다. 아무도 안 쓰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고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았다. 버려진 것을 작업할 때면 지구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앞으로도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덜 주는 사람이 될 거다.”

김소훈/중등과정 2회 졸업생

“하자작업장학교 고등과정의 크리킨디 우화에서 크리킨디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라고 말한다. 하자에서 지내는 동안 청년과정이 살림집을 짓는 모습,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늘어나가는 분들, 밀양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겐 건강한 미래를 물려주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분들을 만나며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나는 중등과정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루 동안 전기를 쓰지 않는 ‘노임팩트데이’와 많은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타게끔 하는 ‘자전거면허시험’을 했다. 아직 내가 스스로 한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계속 되새기는 질문이 될 것 같다.”

임관현/중등과정 2회 졸업생



more info

1) 중등과정 홈페이지
<http://middle.productionschool.org>

2) 영상자료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101개의 목소리> 46편-임관현, 양희주, 한지우(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https://vimeo.com/148204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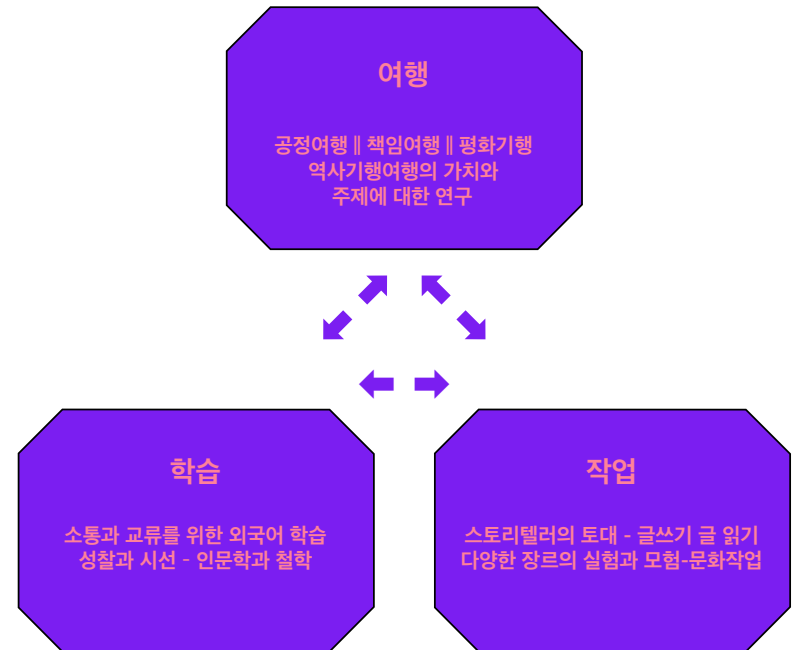
3) 언론보도
하자! 손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 해남신문 / 2015.06.15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31>

로드스콜라

- 사업 이름 : 길 위의 학교 로드스콜라
- 대상 : 16~22세 청소년
- 모집시기 : 11월 ~ 12월 중순
- 모집 정원 : 20명 내외
- 학비 : 2,400,000원(점심식사 포함)
- 학제 : 3년제(1년 2학기)
- 재학 인원 : 1년차 길머리과정, 길가온1과정 0명,
2년차 길가온2,3과정 21명, 3년차 길너머과정 1명

개요

로드스콜라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로드(road)와 '학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콜라(schola)를 합친 말로,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학교, 여행을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로드스콜라는 여행 속에서 철학과 역사, 인문학을 배우고 국내외 개인 및 그룹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연대한다. 소통과 배려,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하며,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세상을 지속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말 로드스꼴라

- 사업 이름 : 한 권의 책, 한 번의 여행, 한 편의 글,
주말로드스꼴라
- 대상 : 14~22세 청소년
- 모집시기 : 12월 ~ 다음 해 1월 / 수시모집
- 모집 정원 : 20명 내외
- 학비 : 2,100,000원(점심식사 포함)
- 학제 : 1년제 (매주 토요일 학습과정,
매월 1회 여행 1박 2일 혹은 2박 3일)
- 재학 인원 : 24명

개요

2015년 주말로드스꼴라 1기를 시작했다. 다른 길을 모색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전부 할애하기 어려운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도 여행하고 공부하는 로드스꼴라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홈스쿨링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또래집단을 마련해 준다. 로드스꼴라 예비 떠벌들에게는 교육과정의 축약판으로 여행학교를 체험하고 훈련해보는 징검다리가 되고자 한다. 토요일에 만나 공부하고 여행하는 주말여행학교지만 <한 권의 책, 한 번의 여행, 한 편의 글>이라는 모토로 로드스꼴라의 공부-여행-문화작업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담아내고자 한다. 내용적으로는 전일제반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지난한 과정을 함께하는 것과 달리 주말반에선 질문을 던져보는 수준의 학습목표를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주말로드스꼴라가 로드스꼴라의 교육방식을 다른 교육의 판(일반학교 등)과 연계시키면서 전체 교육의 판을 흔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업목적

- ① 주말로드스꼴라는 14세~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여행학교다.
- ②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번의 여행을 한 후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와 필드, 공부와 여행,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한다.
- ③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선시대부터 1985년 아직 민주화가 이뤄지기 전의 현대사까지 살펴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을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 ④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르고 여행 중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독립적인 여행자로 성장한다.

일정		내용
2015.02.03.(화)~02.06.(금)	주말1기	지원자 상호면접
2015.02.09.(월)-02.12.(목)	6기	길가온2과정 등록기간
2015.02.10.(화)	주말1기	신입생 최종합격자 발표
2015.02.14.(토)	주말1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5.02.28.(토)	주말1기	시작파티
2015.03.01.(일)	4기	졸업식
2015.03.02.(월)-05.01.(금)	6기	길가온2과정 개강 및 진행
2015.03.20.(금)-03.22.(일)	주말1기	2박 3일 여수여행
2015.04.17.(금)-04.19.(일)	주말1기	2박 3일 동학기행
2015.05.04.(월)-05.23.(토)	6기	이탈리아협동조합프로젝트
2015.05.16.(토)-05.17.(일)	주말1기	1박 2일 인천여행
2015.05.25.(월)-05.29.(금)	6기	단기방학
2015.06.01.(월)	6기	길가온2과정 재개강
2015.06.20.(토)-06.21.(일)	주말1기	1박 2일 춘천여행
2015.06.30.(화)	6기	길가온2과정 종강파티
2015.07.01.(수)-08.30.(일)	6기	여름방학
2015.07.02.(목)	7기	2016년 입학전형 안내 공지
2015.08.03.(월)~08.18.(화)	주말1기	중앙아시아 여행
2015.09.15.(화)	7기	2016년 학교입학설명회
2015.09.19.(토)-09.20.(일)	주말1기	1박 2일 서촌,성북동여행
2015.10.23.(금)-10.25.(일)	주말1기	2박 3일 순천,벌교여행

2015.11.20.(금)-11.22.(일)	주말1기	2박 3일 광주여행
2015.12.19.(토)-12.20.(일)	주말1기	1박 2일 남영동여행
2015.12.22.(화)	6기	수료파티
2015.12.31.(목)	7기	입학지원서 마감일 프로젝트
2016.01.04.(월)-01.08.(금)	7기	상호면접
2016.01.13.(수)	7기	최종합격자 발표
2016.01.중순	주말1기	9박 10일 제주여행
2016.02.20.(토)	주말1기 5기	2015년 주말로드스콜라 1기 수료파티 졸업식

* 2015년 로드스콜라는 2년차 6기 21명, 3년차 5기 1명, 주말로드스콜라1기 24명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성과

□ 로드스콜라 6기

가.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와 ‘대안경제’와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여행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시대 사람들의 다채로운 대안적인 삶을 들여다보는 대안경제체제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 로드스콜라 6기는 ‘고려인이주사’를 주제로 청소년창작연극 <당신이 꽃이 되어 곱게 피면>을 로드스콜라 재학생들이 기획, 제작, 홍보, 배우 등 전 작업과정을 경험하여 150년의 고려인이주사를 이야기는 문화작업자로 성장하였다.

다. 로드스콜라 6기를 수료한 청(소)년 4명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기 위해 ‘자립’을 모색하는 실험의 과정으로 <공가루족>을 조직하였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해발뚱’, 한 달에 두 번 모여서 책 읽고 영화 보며 토론하는 ‘회동’, 청년의 여행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공가루’ 등 2016년, 1년 동안 작업을 계획하여 자립을 실험하는 자발적인 청년모임(6기 수료생)을 조직하였다.

□ 주말로드스콜라 1기

가. 주말로드스콜라 1기 과정을 관통하는 건 역사였다. 1592년 임진왜란에서 시작해 조선말,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공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시간으로는 약 500년의 역사를 공간으로는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방대한 지역을 여행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질문은 “저 역사적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였다.

나. 매월 여행을 떠났다. 책을 읽고 그 달의 주제에 관한 강의를 듣고 여행계획을 팀별로 해서 여행을 떠났다. 갔다 오면 에세이를 써서 여행과 공부를 마쳤다. 어떤 달에는 공부 유달리 잘 되었고 어떤 달에는 여행을 즐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영상을 보고나면 꼬박꼬박 리뷰를 작성하였다. 앞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어내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리뷰들이 1년이 끝나갈 때쯤 증가했다. 정확하게 10월 순천에서야 떠별들은 몸과 마음을 주말로드스콜라에 풍덩 담그고 있는 것 같았다. 어려운 주제들이지만 막상 여행을 떠나면 재밌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자연, 새로운 언어와 낯선 풍경 속에서 잠시 평소의 걱정을 멈추었다. 여행이 끝나면 글을 써냈다. 자신의 이야기와 주제를 연결해내고 그 앞에 선 자신을 성찰하면서 떠별들은 솔직한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길렀다.

다. 여행은 팀별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팀은 주로 길별 한 명에 떠별 4-6명이 배정되었으며 사전에 가이드북을 읽고 여행계획을 해서 역할을 나눴다. 역할은 팀장, 회계, 교통, 식당 등이 있었다. 팀별로 움직이고 저녁에 숙소에서 모여 당기모임을 했다. 팀별로 여행한 것을 나누고 각자의 여행이야기를 나눴다. 종종 공통미션이 나갔다. 골든벨, 시험문제 출제하기 등 주제와 관련한 학습활동에서부터 상황극, 시창작 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전망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여행학교 로드스콜라의 교육과정을 학교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공교육제도, 홈스쿨링,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로드스콜라 7기

2016년 로드스콜라 7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못 생명을 살리는 인간됨'의 관통이다. 이것은 로드스콜라 시즌2의 공동목표이다.

로드스콜라 7기의 전체과정을 통틀어 삶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나를 살리는 훈련을 할 것이다. 생태텃밭, 수공예, 목공과 같은 수업을 통해 나의 삶을 이루는 특정한 부분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살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이다. 또한 이런 수업을 우리의 생활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태텃밭 수업을 통해 식량주권, 종자주권을 배우고 수공예 수업을 통해 불공정한 제3국의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업사이클링 목공 수업을 통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생활방식을 터득한다. 자립, 스스로를 살리는 것은 곧 이웃과 못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 주말로드스콜라 2기
사람답게, 산다는 것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공들여 땅을 일굴
다독다독 사람과 연대하고
저 푸른 창공의 수리
저 심연의 물고기들을 동경하며
생의 순간순간을 만끽 하는 것

인류가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각자도생의 야만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주말로드스콜라2기의 공부는 곰고미 이를 들여다보고
표표히 행하는 자가 됨을 목표로 한다.

글 | 김미경(아리, 로드스콜라 길잡이교사)



영세프스쿨

개요

영세프스쿨은 청소년들의 요리를 통한 자립과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청소년요리대안학교입니다. 일과 학습이 통합된 학습현장 <영세프 밥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요리하는 몸을 만들고 밥으로 사람을 돌보는 태도를 익히며 기초를 다집니다.

영세프스쿨의 교육 과정은 요리 전공 수업 외에 요리 인문학, 요리감성학, 시즌학교, 인턴십 등 배움과 나눔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프스쿨은 청소년들이 요리를 통하여 자기 성장과 자립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 이름 : 청소년요리대안학교 영세프스쿨
- 대상 : 17~22세 청소년
- 진행기간 : 1년 2학기, 2년제
-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그룹면접, 3차 고임돌(예비학교) 4차 개별면접 진행 후 선발 (매년 12월말~1월말 모집, 정원 최대 12명)
- 등록금: 무료
- 장소: 하자센터 본관1층 요리스튜디오
- 총 사업비 : 120,110,000원(후원금 27,120,000 포함)
- 2015년 수료인원: 기초과정 수료 인원 12명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수업 09:00 ~ 13:30	영셰프밥집 실습 - 재료손질 - 메뉴작업 - 배 식 - 뒷 정리				
중식 13:30 ~ 14:55	식사 후 멘토 셰프의 오전실습 피드백(운영일지 작성)				
오후 수업 15:00 ~ 18:00	요리 감성학 - 명상 & 몸 수업 - 연극 수업 - 밴드 수업 - 목공문화 수업 도시농사	요리 전공 수업 - 한식 - 일식 - 중식 - 양식 - 공정무역 & 커피	요리 인문학 - 경영수업 - 푸드 & 소셜 이슈 - 절기 음식 - 푸드 테라피 - 미각 수업 - 재료공학 - 환경 수업 ...	자치활동	네트워크활동 - 대안마켓참여 (달시장, 마르쉐 ...) - 견학

1) 학습단계

- 1단계 : 요리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청소년 -> 자기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청소년
- 2단계 : 요리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청소년 -> 마을의 요리사, 돌봄의 요리사
- 3단계 :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 -> 요리로 자립하는 청소년

2) 인턴십

- 현장에 투입되어 실전에서 배우는 과정
- 취업 또는 취업 직전의 인턴십 심화 과정, 현장 전문가 멘토링

3) 시즌학교

- 배움을 나누는 과정이 시즌학교의 토대가 됨
- 일하며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1주일 단기 교육과정 (1년차 과정)
- 영세프 1년 트레이닝과 인턴십 과정 중 참여 가능
- * 2016년 영세프 제주 슬로비 시즌학교(7월 초 1주일 예정)

4) 창업학교 (추진기획 단계)

- 영세프 청년레스토랑을 목표로 실제 창업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교육과정 추후 설계
- 주요 멤버 : 전문가 그룹 및 이미 1년 이상의 현장 트레이닝을 수료한 영세프 1기~6기를 중심으로 구성

more info

1)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chef8

2) 기사

- 최현석 셰프 1 "요리사에게 자격증은 필요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9270331>

- "요리 철학부터 실무까지 배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4942.html>

- '학생 셰프'들의 맛있는 초대...청소년 요리캠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018300004.HTML?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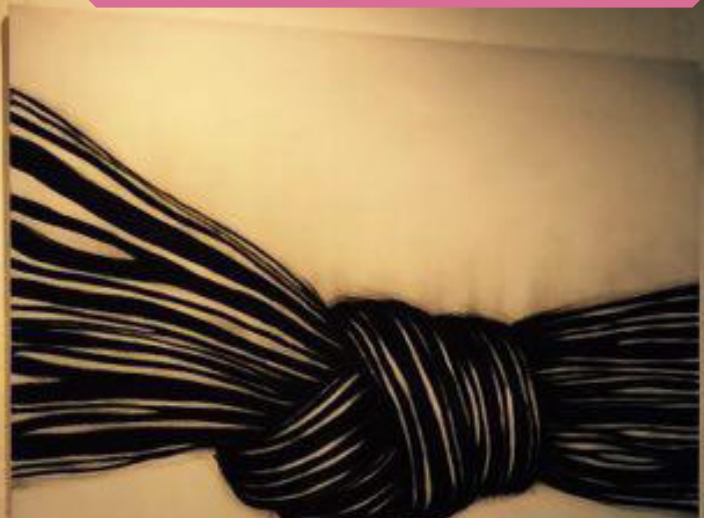
- "요리 성적은 1등이죠"...'셰프의 꿈' 키우는 아이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8973.html



하자허브

- ◇ 허브갤러리
- ◇ 작은달시장
- ◇ 나눔부엌
- ◇ 자공공 아카데미 4기
- ◇ 커뮤니티 목공방
- ◇ 마을자전거공방
- ◇ 흙공방
- ◇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허브 갤러리



개요

허브 갤러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전시와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공공예술 공간이다. 신관 2층의 갤러리 공간에 공공성을 갖춘 전시를 대관료 없이 수용함으로써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하자과 허브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문화를 매개로 하여 주민 및 작가들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지향한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하자과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및 작업의 결과물을 전시해 하자과 안팎의 회고를 이끌어 냈다.

- 사업 이름 : 허브 갤러리
- 대상 : 공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개인 및 그룹,
하자마을 주민 및 지역 주민, 신진작가 및 사회적 경제 그룹 등
- 진행기간 : 2015년 3월~12월
- 참가방법 : 상시 공모 및 초대를 통해 공공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 선정
- 장소 : 신관 2층 허브 갤러리
- 총 사업비 : 639,250원
- 총 참여인원 : 5,240명

2012년 7월부터 전시를 이어온 허브 갤러리는 상시 공모 및 초대를 통한 비정기 전시를 통해 다양한 이웃 그룹들을 만나왔다. 그 통로를 꾸준히 연계해온 하자마을 주민들과 새로이 연결된 주변 그룹들과의 기획전 및 초대전, 하자 내부의 다양한 사업을 갈무리하는 쇼케이스 형식의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했다. 이들과의 전시를 통해 허브갤러리는 하자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1) 분야별 운영 및 실적

구분		내용	연계 단체	
기획전시	8회	밀양 사진전 꽃의기억 7회 전시	어린이책시민연대 수다FAT	2개
초대전시	4회	원화전 2회 바다에서왓수다 가을그룻전	복센스 출판사, 자연의벗연구소 제주도좋아	3개
하자 연계(내부) 전시	4회	베트남 사진전 달달전 씨앗학교 쇼하자 방과후학교 쇼하자	로드스꼴라 달시장 씨앗학교 방과후학교	4개
총	16회		하자 외부 : 5개 단체 하자 내부 : 4개 단체	9개

회	전시 기간	내용	참여 작가 / 단체	연인원
1	4.01~4.20	- 밀양 사진전 <지키고 싶은 것들> *관련행사 (이야기콘서트 4/04 14:00)	- 빈진향 작가 - 어린이책시민연대	220
2	4.22~5.11	- 베트남 사진전 <호야쓰, 평화의 꽃 한송이 당신에게> *관련 행사 (토크콘서트 : 4/25 16:30)	- 로드스콜라	200
3	5.15~5.30	- 어린이책 원화전 <날마다 설레는 텃밭 만들기> *관련 행사 (출간파티 : 5/20 19:00 / 텃밭 운영자를 위한 지도자워크숍 : 5/16 15:00)	- 북센스출판사 - (사)자연의벗연구소	800
4	7.10~7.11	<꽃의 기억> 오프닝 전시 *관련 행사 (오프닝 : 7/11일 17:00)	손은정(수다FAT)작가 참여작가, 주민, 관계자 및 초대인사 등	300
5	7.13~7.24	<꽃의 기억#1 : Cairo2015> 남지우 사진전	- 수다FAT - 남지우 작가	230
6	7.25~8.07	<꽃의 기억#2 : 아놀드, 예아, 치달 3인 회화전>	- 수다FAT - 손세정, 문수현, 홍예슬 작가	300
7	8.10~8.19	<꽃의 기억#3 : 조은진 회화전>	- 수다FAT - 조은진 작가	230
8	8.21~9.03	<꽃의 기억#4 : 이지영 공예전>	- 수다FAT - 이지영 작가	360
9	9.15~9.20	창의서밋 특별 전시 <바다에서 왓수다>	- 제주도좋아	900
10	9.23~10.08	<꽃의 기억#5 : 김현주, 데이문 판화전> *관련 행사 (작가와와의 대화 : 9/30일 13:00)	- 수다FAT - 김현주, Damon .TK 작가	420
11	10.10~10.28	<꽃의 기억#6 : 배상순 회화전>	- 수다FAT - 배상순 작가	400

12	11.03~11.14	조성미 도예전 <2015 가을 그릇전>	- 조성미 도예가	210
13	11.16~11.22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원화 전시	- 북센스 출판사	150
14	11.24~12.02	달시장 사진전 <달달전>	- 기획2팀(달시장)	200
15	12.14~12.18	씨앗학교 쇼하자	- 씨앗학교 친구들	130
16	12.19~12.29	방과후학교 <수상한 식탁> 쇼하자	- 수상한 식탁 친구들	190
총 16회 전시			연인원	5,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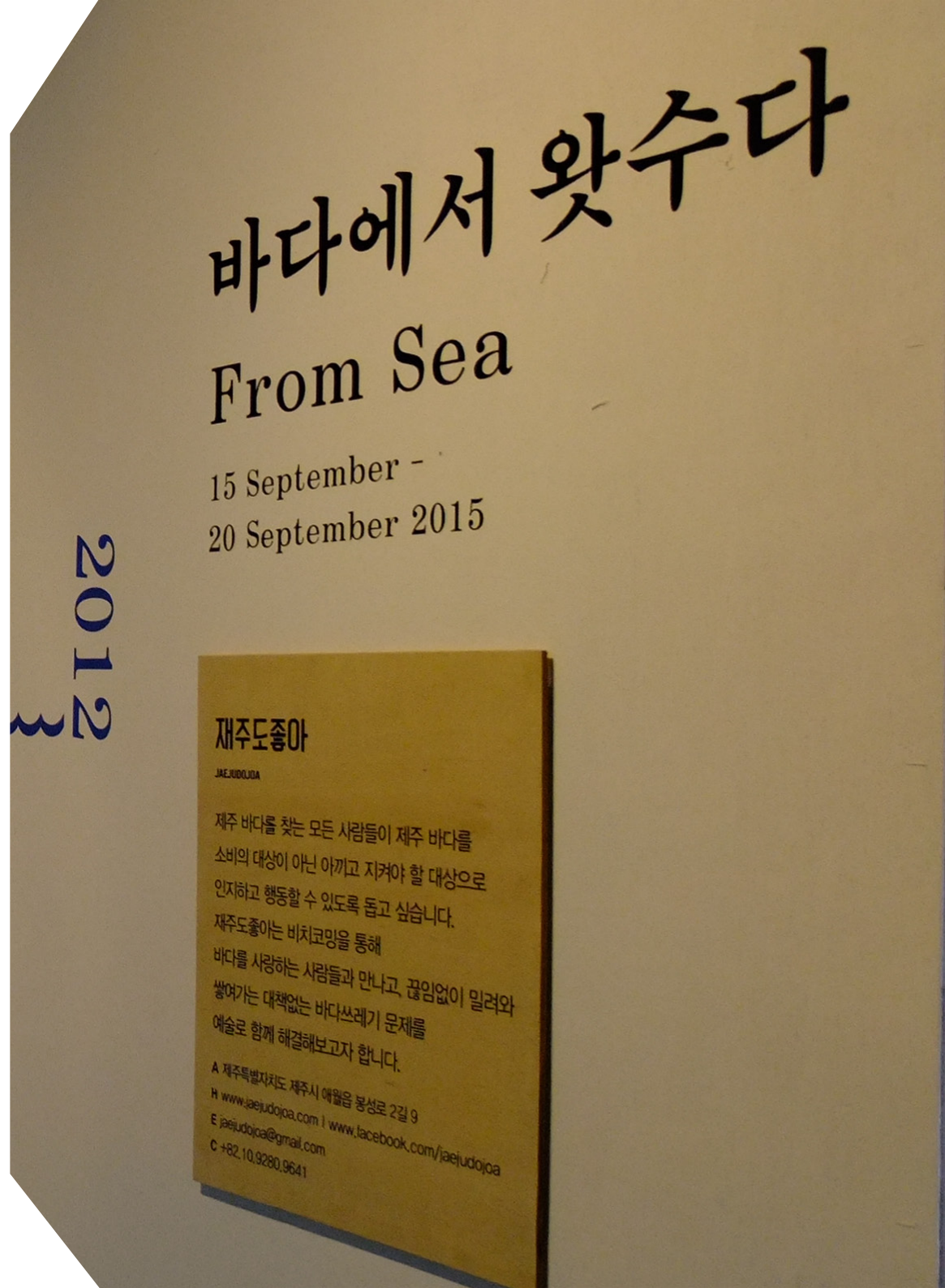
성과와 전망

하자 내외부를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는 사업인 만큼, 기획전과 초대전의 비중을 높이자는 2014년의 평가를 반영하여 외부와 함께 기획하거나 더욱 적극적인 초대를 통해 꾸준히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아티스트,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수다FAT'와의 콜라보레이션 전시 <꽃의 기억>시리즈는 회화, 도예, 판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릴레이로 소개하여 시민문화와 국내 예술이 만나고 동반 성장하는 예술 활동의 공간으로서 그 가능성을 실험해보았다. 또한, 문화작업자들이 서로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며 그들의 예술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전시뿐만 아니라 오프닝 파티, 이야기 콘서트, 작가와의 대화 등 관련 행사도 진행하여 작가의 삶과 전시가 담은 의미를 좀 더 섬세하게 나누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기능에 좀 더 집중하였다. 그러나 외부의 팀과 협력하는 전시일 경우 외부 참여작가들이 허브 갤러리 및 허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해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전시 공간으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가벽을 세우고 블라인드를 제작하였으며 레일을 추가 설치하여 벽면 활용도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허브 갤러리는 앞으로도 하자가 생산하는 이야기,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내부적 허브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예술 활동이 벌어지는 공적 예술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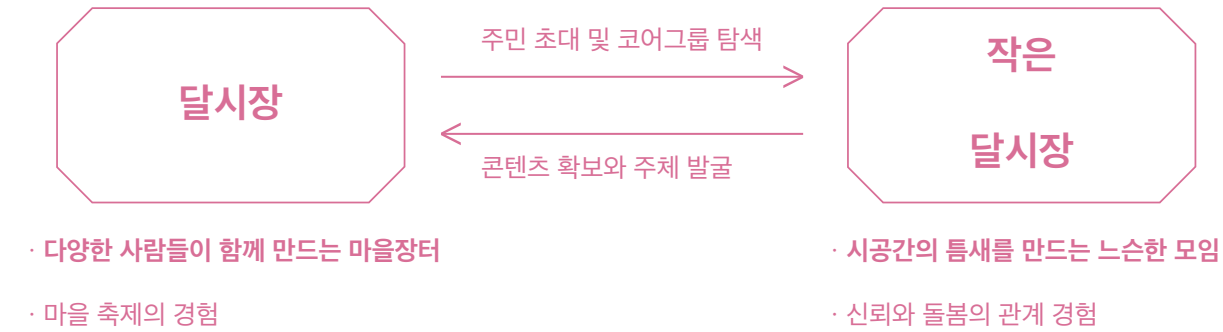
작은 달시장

개요

하자센터의 달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느슨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마을 장터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놀이터이자 시장'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자 마을 주민과 영등포 지역 주민이 함께 판을 만들 수 있도록 느슨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세대 간 만남과 서로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함께 사는 감각(Co-living)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 사업인 작은 달시장은 단발적인 축제 성격의 시장이 아니라 '동네' 단위에서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지속가능한 동네 장터의 모델을 제안한다.

- 사업 이름 : 작은 달시장
- 대상 : 하자 마을 주민 및 영등포 지역 주민
- 진행기간 : 2015년 3월~12월(시범사업 3회 포함)
/매 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2시~3시
- 참가방법 : 현장 참여
- 참가비 여부 : 없음, 음료 및 간식 품앗이(허브카페)
- 장소 : 하자 신관 일대
- 총 사업비 : 915,820원
- 총 참여인원 : 256명

달시장과의 연계



추진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

일정	내용	세부내용(주요 프로그램 등)
3월	파일럿 진행 1회차	작년 지역놀이모임으로 모인 어린이, 엄마 등 단골을 중심으로 한 파일럿 놀이터 진행
4월	파일럿 진행 2회차	
5월	파일럿 진행 3회차	
6월	메르스 확산 여파로 인한 사업 연기	8월로 연기
7월	사전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 컨셉 및 프로그램 기획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실행시 역할 분담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 · 홍보물(웹자보) 제작 및 뉴스테러 발송, 엄마 그룹 초대
8월	작은 달시장 런칭 준비 및 초대	· 프로그램 기획 및 작가 섭외 · 지역 주민 단골 초대
	작은 달시장 런칭 및 운영(8/22)	

9월	9월 작은 달시장 준비 및 초대	· 프로그램 기획 및 작가 섭외 · 지역 주민 단골 초대
	9월 작은 달시장 운영(9/19)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과 연계 진행
10월	10월 작은 달시장 준비 및 초대	· 프로그램 기획 및 작가 섭외 · 지역 주민 단골 초대
	10월 작은 달시장 운영(10/24)	· 하자작업장학교 - 자전거면허시험 · 모두 나누는 부엌 - 화덕으로 함께 끓이는 호박수프
11월	11월 작은 달시장 준비 및 초대	· 프로그램 기획 및 작가 섭외 · 지역 주민 단골 초대
	11월 작은 달시장 운영(11/21)	· 실내 진행 · 갤러리 전시 연계 - 구연동화 워크숍(위금실)
12월	12월 작은 달시장 준비 및 초대	· 프로그램 기획 및 작가 섭외 · 지역 주민 단골 초대
	12월 작은 달시장 운영(12/19)	· 실내 진행 · 트리 만들기 워크숍 - 메리 소쿠리마스(주민 작가 정재범)

사업 세부 내용

1) 함께 어울리는 놀이터

어린이들이 서로 어울리는 몸놀이, 감각을 살리는 손놀이 등을 통해 스스로 놀이의 장을 만든다.
 놀이터를 통해 서로 믿고 돌보는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일상의 틈을 만든다.

▣ 놀이터 운영 원리 및 세부 활동

스스로 놀이터 : 누구나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장

1. 어린이가 스스로 펼치고 진행하는 자발적 놀이 (그리기, 만들기 등)가 가능하도록 조성
2. 중정 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의 주체가 되어 룰을 만들고 함께 놀면서 어울림

같이 놀자 : 동네 어른, 청소년,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어울리는 장

1. 림보, 줄넘기, 공놀이 등 골목놀이 진행
2. 기차놀이, 꼬리잡기 등 대동놀이 진행

심심한 듯 놀자 : 주변의 재료를 활용해 즐겁게 노는 법을 체득하는 장

1. 흙, 나무, 물 등 자연물 및 주변의 것을 활용한 놀이 진행
2. 중정의 나무집을 해체-분리-가공해 만든 나무블럭 놀잇감 도미노 놀이나 탐쌍기 놀이 등에 활용
3. 흙공방을 중심으로 황토, 점토, 자갈 등 다양한 흙재료를 가지고 노는 놀이터 진행

2) 모두가 나누는 부엌

하자 허브의 '나눔 부엌'이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개인이나 가족만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돌봄'과 '챙김'을 경험한다.

각자 가져온 자투리 식재료를 모아 하나의 음식을 함께 만들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음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는 장을 만든다.

▣ 부엌 운영 원리 및 세부 활동

모이는 공간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재료를 모아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간단한 음식 조리
한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험
하자 허브 옥상 텃밭에 기른 채소들을 화덕을 이용해 음식 조리

나누는 공간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과 일상의 경험 공유

함께 누리는 공간

참여자 전원이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며, 쉬는 장소
놀이터와 구분 없이 넘나드는 편안한 공간

3) 같이 만드는 장터

마을 주민들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교환되는 시장을 지향한다.

영등포 지역의 거주하는 단골 어린이들이 '어린이 장사꾼'으로 참여해 벼룩시장, 물물교환을 진행하며 새로운 경제 감각을 익혀나간다.



성과와 전망

‘어린이들의 시장이자 놀이터’ 컨셉으로 시작된 작은 달시장은 근거리 거주하는 어린이, 엄마 등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커뮤니티 시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아직까지 작은 달시장을 찾는 주민 수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양적인 숫자보다 작은 달시장과 하자 허브를 자주 드나드는 단골(코어그룹)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작은 달시장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드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하려면 주민들의 욕구와 하자센터, 하자 허브의 정체성을 한데 엮어내는 기획(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하여 내년에는 사업-사업간 연계지점을 고려하는 기획으로 중등 방과후 학교, 허브 커뮤니티 카페 등 각 허브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나눔부엌

개요

나눔부엌은 '마을'의 다양한 성원, 다양한 세대가 나눔과 돌봄, 현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을 구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독신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매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집밥'이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외로운 개인들이 홀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점점 고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거리'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나눔부엌을 설정했다. '창의적 공공지대'의 성격을 갖는 하자허브(신관)의 카페, 주방 공간을 공동공간으로 열어두면서 사회적 감각(협동적 자아)을 배우는 다양한 만남의 장으로 기획, 진행했다.

- 사업 이름 : 나눔부엌
- 대상 : 하자마을주민 및 지역 주민, 외부 파트너 그룹
- 진행기간 : 2015년 3월~12월
- 참가방법 : 즉석 참여
- 참가비 여부 : 없음(참여자들이 반찬, 후식, 식재료 등을 가져옴)
- 장소 : 신관 1층 허브카페
- 총 사업비 : 2,999,870원
- 총 참여인원 : 3,062명 (연인원)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

구분	일정	내용	연인원(명)
수요나눔부역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외부인과 지역민을 포함한 하자 주민들이 반찬 한 가지나 다양한 음식, 또는 식재료 등을 가져오고, 나눔부역 담당팀이 밥, 국, 한두 가지 반찬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함	2,599 (성인 2,252/ 청소년 239, 아동 108)
도시락카페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쌀을 사고, 아침마다 집계한 수대로 밥만 준비. 각자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 함께 식사함	463
행사 연계 부역		큰 행사와 의례의 먹거리를 함께 준비함	
부역(공간) 나눔		하자 주민이거나 연관 있는 단체의 회의 또는 행사에 부역을 빌려 주고, 대관료를 쌀로 받음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여러 경로로 센터와 인연을 맺은 생산자와 직거래함(우리콩 두부 12회 약 400모 / 방축유정란 16회 약 200줄) '푸드 앤 저스티스 지니스테이블'로부터 판매하고 남은 식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음(약 10회)	

성과 & 전망

30~60여 명의 하자마을 주민들이 매주 모이는 수요나눔부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일을 기억하고 찾아오거나 초대받는 외부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하자의 마을부엌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보인다. 나눔, 돌봄과 환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웃인 영등포 지역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고민의 지점이지만, '마을'을 광의로 해석할 때 지역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마을의 '부엌'은 단순히 먹는 공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는 과정을 통해 연대, 환대, 나눔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요나눔부엌 및 부엌 공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형성을 다른 사업과의 연결 및 결합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more info](#)

자공공 아카데미 4기 '국민, 시민, 난민의 시대'

- 사업 이름 : 자공공 아카데미 '국민, 시민, 난민의 시대'
- 대상 : 시대를 함께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탐구하려는 이들
- 진행기간 : 3~5월 총 8강 진행
- 참가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4,337,020원
- 총 참여인원 : 1,626명(연인원)

개요

자공공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아카데미는 '세상을 구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그간 우리가 살아온 '근대' 문명을 성찰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토론을 벌이는 자리이다.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공간과 사회 큐레이팅'의 주제로 '창의적 공공 영역'을 만들어낸 장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2기와 3기는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함께 질문하며 공부하는 자리였다. 2015년 봄 제4기 자공공 아카데미 4기는 인문사회과학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근대성'을 주제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국민의 시대', '시민의 시대', 그리고 '난민의 시대'로 나누어 차분하게 살펴보았다.

자공공 아카데미 4기 '국민, 시민, 난민의 시대' 핵심 키워드

- 국민의 시대: 강박의 근대, 경제성장제일주의 국제시장, 그리고 변호인 세대
- 시민의 시대: 소비와 개인, 정체성의 정치학, 합리성
- 난민의 시대: politics of survival, 감정의 구조, 세월호



기획의도

더는 시대 합의가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2015년 자공공 아카데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회과학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근대성`을 주제로 즐거운 학습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려 했다. 특히 한국의 근대성을 사례로 근대성에 대한 재구성을 해보려 한다. 근대화 과정을 `국민의 시대`, `시민의 시대`, `그리고 `난민의 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고 특히 그간의 갈등적 공존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 이후 대한민국에 사는 주민들은 삶을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사회적인 것`에 대해, 인간이란 종족이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가졌고 또 가지고 있다. 수백 년을 지나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후세인/외계인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매우 잔인하고 비천하고 탈출구 없는 시대를 산 사람들로 기억하게 될까? 자신의 생애 기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격변기에 묻게 되는 철학적 질문은 무엇이며 갖추어야 할 덕목과 능력은 어떤 것일지를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상적 실천을 해갈 것이다. 즐거운 학습 과정에서 평생을 통해 할 공부법을 익히고 동료들 만나면서 전환기를 제대로 살아낼 탁월함에 대한 감각을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행

- 총 8강 진행

2015년 3월 19일(목), 4월 2일(목), 3강 4월 9일(목), 4강 4월 23일(목), 5강 4월 30일(목), 6강 5월 7일(목), 7강 5월 14일(목). *8강 5월 21일, 오후 4시~7시(*8강은 오후 5시~8시)

1강(3월 19일) `해방적 파국: 벤야민, 아렌트를 통해 보는 유럽 탈/근대화의 예언자들`

발제 | 김영옥(연세대/독문학)

토론 | 엄기호 (연세대/문화학, [단속사회]의 저자),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하러홀

참여인원 | 182명



2강(4월 2일) ‘국민의 시대: 군사주의와 반군사주의’

발제 | 권인숙(명지대/여성학)

토론 | 김찬호(하자센터, 성공회대/사회학),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82명

3강(4월 9일) ‘국민과 시민 사이: 가장 오래된 전선, 가부장제- 신여성의 후예들, 소비와 신분상승의 드라마’

발제 | 김수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사회학, [과잉 근대] 저자)

토론 | 나임윤경(연세대/여성학),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82명

4강(4월 23일) ‘세월호 이후: 살아남기 위한 글쓰기’

발제 | 김순천([금요일엔 돌아오렴] 대표저자), 이윤영(인디고 서원, [새로운 세대의 탄생] 편집자)

토론 |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82명

5강(4월 30일) ‘국민과 난민 사이: 칸트와 세월호’

발제 | 김석수(경북대/철학과)

토론 | 김희옥(또문, 하자 작업장학교/철학),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82명

6강(5월 7일) ‘(불)투명사회에서 미끄러지는 난민들-배설의 정신분석학’

발제 | 맹정현(서울정신분석포럼/정신분석학),

토론 | 백상현(강남대/철학, [라깅 미술관의 유령들] 저자),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56명

7강(5월 14일) ‘시민과 난민 사이 :배제와 포용, 그 시민의 자격’

발제 | 엄기호(연세대/문화학, [단속사회]의 저자)

토론 | 조문영(연세대/문화인류학),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56명

8강(5월 21일) ‘메슛에서 밀양까지 : 국가난민에서 지구 난민으로’

발제 | 이상국(연세대/문화인류학)

토론 | 김현미(또문, 연세대/문화인류학), 조한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156명

성과

자공공 아카데미 4기는 하자네트워크학교 5개 학교 학생 80여명,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한국의 문화연구' 수강생, 20여명이 중심 그룹으로 참여하였다. 10대 중반 청소년부터 20대 후기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세대가 함께 공부하는 보기 드문 강좌이다. 각 강좌는 연사의 강연을 듣고 나서 참여 그룹별로 조별 토론을 진행하고, 전체가 다시 모여 종합토론을 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세대가 모여서 함께 학습하는 자공공 아카데미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조별 토론은 학습 수준이 비슷한 또래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종합토론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지식과 사회경험을 해 온 집단의 '차이'가 드러난다. 개인의 생각과 집단별 색깔의 차이가 공유되고 상호작용하는 중추적인 학습의 장이 펼쳐졌다.

대상자 코멘트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했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여성전용 쉼터라든지, 여성전용 주차 공간이라든지, 남성들보다 특혜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남성 차별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남존여비 사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비슷한 말로 남녀 역차별 또는 여성 특혜라는 칭호도 있다. 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있다. - 3강 '국민과 시민 사이 : 가장 오래된 전선, 가부장제' 작업장학교 고등과정 리뷰 글 중에서 -

세월호 사건의 '해결'이란 과연 가능할까? 강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월호 사건의 '해결'이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계를 바꾸어보자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전환점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 경제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야기까지 있었으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러니 이 복잡한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마음을 먹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을 했다. - 4강 '세월호 이후 : 삶은 가능한가' 작업장학교 청년과정 리뷰 글 중에서



성찰과 전망

2012년에 시작한 자공공 아카데미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인류가 쌓아온 지혜에 결불을 찢으며 함께 세계를 탐구하는 배움의 자리였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만을 배움이라 할 순 없다. 잘 모르겠는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심도있게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논의의 장에 결불을 찢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배움의 동기가 생겨날 수 있다.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인류가 쌓아온 역사와 질문에 기대어 보는 것, 다양한 세대가 서로 의논하는 경험을 하는 것, 생각을 나누는 공공적인 경험을 하는 것, 이를 통해 자공공의 '학습 생태계'가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more info](#)

자공공넷 <http://jagongong.net>

하자허브 커뮤니티 목공방

개요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은 모든 것을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요즘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삶을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를 지닌 다양한 목공 워크숍을 기획, 진행한다. 특히 영등포 지역 일대 버려진 펠릿(빠레트) 등 폐자재들을 수거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리사이클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오늘의 작업
구분 (Today)

1F. **빠레트 쓰레기통**
pallet wastebasket

B1. **서서 책상**
standing desk

Like this

- 사업 이름 : 하자허브 커뮤니티 목공방
- 대상 : 14~19세 청소년 및 다세대
- 진행기간 : 2015년 1월~12월
- 참가방법 :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함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지하 목공방
- 사업비: 1,477,990원
- 참여인원: 총 1,000명

프로그램 명	일시	대상	프로그램 내용
마을 공방 만들기 <커뮤니티 목공방>	7월-12월	지역 청소년 및 주민, 다양한 동아리 및 작업자 그룹	만들고자 하는 작업물의 목적과 의미(사회적, 공공의 가치), 협력의 방식이 부합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서로 학습하며 실험을 하는 공공의 작업공간 만들기
공동작업 동아리 모집 프로그램 <주심주심 공작단>	3월-12월	커뮤니티, 목공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서울역쪽방상담소와 도시연대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시작한 "주심주심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을 위한 공동의 작업을 진행
마을공방 네트워크 형성 및 자문회의	7월-12월	마을공방을 이용하고 있는 작업자 및 주민	창의적 공공지대로서 "공방"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업들을 서로 공유, 학습하는 실험적 모임
3만엔 비즈니스 프로젝트 <서서책상>	7월-12월	서서 일하는 것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사회현상과 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 하고 창의적 작업 및 문화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공동작업
협력 프로그램	1월-12월	청(소)년, 지역주민, 일반인 등	협력학교 실과교실, 마을형 방과후학교, 직업체험 <목공하자>, 살림집 프로젝트, 창의캠프, 달시장, 작은달시장, 토요학교<버려진 동물을 위한 ooo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목공을 다양하게 활용한 작업 진행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공방(실과) 수업을 통해 기초기술, 생활기술 등을 익히고, 소비적 삶에서 생산적 삶으로 전환해보는 경험을 한 해였다. 목공을 비롯하여 손과 몸을 깨우며 다양한 삶의 기술들이 오가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배움이 교실을 넘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2015년의 목공방은 창의적 공공지대로서 여러 커뮤니티와 사람들을 엮고, 사회현상과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적 작업과 대안적 문화로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새로운 “공방”의 가능성을 실험한 한 해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교사, 대안공간, 지역커뮤니티,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그룹들과 보다 구체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계성을 확장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more info

1) 기사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우리에게 나무란 치료제이자 소통 도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2/2015062202505.html

무한나눔사이클 자전거공방

개요

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 공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가능한 창의적 동력의 자전거공방 문화 만들기'의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자전거를 매개로 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전환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인간 동력에 의한 에너지 생성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가, 자원활동가 등과 연계해 자전거를 매개로 한 진로직업, 생태, 지역연계 체험 및 마을에서의 자전거 공방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

- 사업 이름 : 자전거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진행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참가방법 : 전화 /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지하 1층 및 외부
- 총 사업비: 2,397,980원
- 총 참여인원: 605명

프로그램 명		부제	일정	세부내용	연인원
청소년 자전거 교실	협력학교 실과교실	<상반기> 소셜라이딩1, 자전거면허 만들기1	3.10 ~11.26	산어린이학교, 하자 작업장학교 중등 학생들과 폐자전거를 활용하여 자가정비를 배우고, (산어린이학교)소셜라이딩을 통해 자전거 타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알렸다. (작업장학교)자전거 면허 이론시험을 작성하며 총체적으로 자전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505명
		<하반기> 자전거면허 만들기2, 소셜라이딩2		(산어린이학교)소셜라이딩을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역할 훈련을 하고, 학기말에는 모든 학생이 합동 라이딩으로 학기를 마무리 했다. (작업장학교)자전거 실기 코스를 직접 그리고 면허증 디자인까지 마무리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면허시험을 직접 진행하며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생활자전거 프로젝트	<하반기> 하자작업장청년과정과 함께 카고바이크 워크숍 진행	4.30 ~11.19	레저 문화로 인식되어 있는 자전거 문화의 대안으로 '생활자전거(카고바이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마을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 버려진 자전거들을 이용해서 관심과 정성이 모이면 적은 비용으로 도 쓸모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하고자 했다.	40명

외부연계 >

영등포자활센터 동그라미 사업단 / 교육용 폐자전거 지원협약
자전거공방 두부공 / 청소년 자전거 프로그램 기획자문

성과 및 전망

2012~2013년은 다양한 대상과 청소년 자전거교실(단기 프로젝트, 일일직업체험, 삶디자인 학교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프로그램이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2014년에는 대상의 폭을 줄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꾸준히 함께하기 위해 하자작업장학교를 비롯한 두 개 대안학교 중등과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협력학교 실과교실'을 진행했으며 공교육 고등학교 두 곳과 협력한 장기 프로젝트인 '플랜 B'에도 참여하였다. 대안 교통수단으로서의 탈거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기(리사이클링), 인간 동력으로서의 몸 발견하기, 생태와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생활기술로서의 자전거 정비기술 워크숍 등을 참여 청소년들의 관심과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3년 동안 두 개의 대안학교와 자전거 수업을 진행하며, 자립적으로 '주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2015년에는 각 대안학교의 특성(인문학, 토론중심)에 맞춰서 하자작업장중등과정은 '자전거면허시험'이란 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론시험과 면허코스, 면허증 발급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완결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산어린이학교중등과정은(행동하는 현장 중심) 수년 동안 자전거 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자전거 타는 행위를 '사회적 소통'의 키워드로 발전시키는 '소셜라이딩'을 경험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고민하고 홍보방법을 연구했다. 또한 해당 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기말에는 2개의 대안학교 합동으로 소셜라이딩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작업장학교 청년과정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활자전거를 만들어보는 카고바이크 워크숍을 통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쓸모없는 것들로 생활을 편리하게 개선해나가는 손과 몸의 기술을 함께 찾아 나가며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나가는 작업을 함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자기정비 등이 가능한 죽돌들이 기획단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자전거 수업을 역으로 제안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과 함께 여러가지 실험을 해나갈 것이다.



흙공방

개요

흙공방은 도시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흙의 에너지와 순환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점토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맨발과 손으로 흙을 느낄 수 있는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흙공방은 2014년 1월부터 하자마을 주민들과 판돌들이 직접 손을 보태어 공공의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흙공방은 생태와 삶의 근원인 '흙'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물성에 대한 이해 등 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삶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흙 작업 확장의 일환으로 도시속 흙을 살리는 지역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정성으로 가꾸며 사회와 소통하는 직접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식과 지혜, 이성과 감성, 머리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자립)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안학교 중등 청소년 대상의 실과교실, 협력 중고등학교와의 워크숍 등에서는 청소년이 친구들과 협력해 공공의 자원을 살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성껏 가꾸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형태의 흙작업을 놀이와 연결시킨 어린이 대상의 흙놀이터를 상시로 운영해 마을공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았다.

- 사업 이름 : 흙공방
-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지역 주민 등
- 진행기간 : 2015년 1월~2015년 10월
- 참가방법 : 프로젝트별 모집
- 참가비 여부: 무료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101호 흙공방
- 총 사업비: 65,800원
- 총 참여인원: 총 783명(연인원)

프로그램 명	일시	대상	연인원	내용
협력학교 실과교실	3월~10월 (총 20주/ 주 2회/ 40회 수업)	청소년 성인	393명	협력학교 중등과정(작업장학교/산어린이학교) 청소년 대상의 흙워크숍 진행
달시장, 생각하는 청개구리 흙공방 체험	6월~9월 (총 4회)	아동 청소년 성인	300명	달시장 운영시 지역주민 중 아동 및 유아 대상의 흙공방 놀이터 체험과 물레 워크숍 진행
연당중학교, 협력학교 통합 워크숍	4월 16일	청소년 (연당 중학교)	60명	흙벽돌 만들기 워크숍 진행
서밋연계 흙워크숍	9월 14일~17일 (총 4일)	청소년 및 성인	30명	서밋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작업장학교 청소년 및 흙작업 전문가들과의 미장, 흙담 만들기 등의 흙워크숍

성과 및 전망

흙공방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움과 놀이는 대상자와 작업자의 호흡이 중요하며 시간 운영도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상호 소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충만감을 느끼고 몸을 직접 쓰는 과정에서 공감능력과 회복력을 키워간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이라면 잠시나마 고민과 스트레스를 뒤로 하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주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이 일상에 자리 잡는다면 자신과 타인, 일과 삶,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흙공방에서는 협력학교 실과교실 수업을 통해 중등 연령대 흙워크숍 프로그램이 개발 및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성을 위주로 한 손작업 워크숍의 유의미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작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달시장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공방 워크숍, 흙놀이터 체험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 공방형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 방과 후 학원 스케줄에 쫓기고 방에서 혼자 놀기만 했던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흙을 밟고 다니며 생동감을 찾을 수 있고 자녀와 대화가 없어 고민했던 부모들은 흙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놀이와 배움, 그리고 관계의 시간들은 아동, 청소년 및 그 성인 가족들에게까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다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간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는 청개구리

개요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하자센터가 한국암웨이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젝트로서, 2012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어린이는 스스로 배우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어린이가 배우고 성장할 창의적 환경을 만드는 일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심 속 어린이 놀이축제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열고 있다. 분당 암웨이브랜드센터 및 서울의 공공장소에서의 놀이축제를 통해 놀이문화를 환기하며, 하자센터의 달시장과 함께 놀이터를 진행하면서 마을놀이터의 장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작업을 매개로 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과 작업자들이 동료로서 지속적인 배움의 장을 갖는 '창의클래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 이름 : 생각하는 청개구리
- 대상 : 만5-14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3월 1일 - 2016년 2월 28일
- 총 사업비 : 290,000,000원
- 총 참여인원 : 8,210명 (실인원)

2015년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창의’와 ‘놀이’를 키워드로, 기존(2012-2014) 사업흐름을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이하 움터)’의 큰 틀에서 통합하고, 3화(정례화, 사례화, 여론화)를 통하여 앞으로 3개년 연속사업으로서 독자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진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움터@분당, 서울은 독자적 기획TF를 구축하고 이후 자생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움터@분당은 지역 작가 및 문화예술가들의 놀이터 데뷔의 장이자 움터@서울의 대규모 놀이터로 활동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발돋움 판으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놀이터 문화를 체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역 놀이 활동가를 발굴하는 데 힘썼다. 기존(2012-2014) 사업 중 지역아동복지센터 10여 곳에 찾아가 진행했던 창의클래스(창의교육 프로그램)는 하자센터에 모여 디자인, 영상, 공연 세 분야로만 진행되는 ‘어린이창의학교 & 캠프’로 개편하였고 하자의 마을놀이터 실험과 연동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놀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놀이웹툰을 연재하였다.

진행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16년)
움직이는 창의 놀이터		4/18 움터@분당 -봄 놀이터	5/29 움터@하자 -마을놀이터		7/18 움터@분당 -여름놀이터 7/31 움터@하자 -마을놀이터	8/28 움터@하자 -마을놀이터	9/18 움터@하자 -마을놀이터	10/19 움터@분당 -가을놀이터 10/25 움터@하자 -마을놀이터	11/21~22		1/23 움터@분당 -겨울놀이터
어린이 창의 클래스	1/23 움터@분당 -겨울놀이터				7/27-29 Refresh Camp @영월		2학기 수업 진행 공유회 및 연말파티				
놀이 콘텐츠					공식 웹 오픈 -블로그,SNS			10/16~2016/1/22 놀이웹툰<링가링가>연재@네이버 도전만화 *2016년도 놀이달력 제작 및 배포			

성과

먼저, 2015년은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떠올라온 ‘놀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움직이는 창의놀이터’가 계절놀이터, 마을놀이터, 순회놀이터(공공장소) 3가지 컨셉으로 정리되었으며, 놀이터 축제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방물단과 함께 기획, 운영 면에서 협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서울시와 협력, 공공장소에서 열린 시민청 놀이터 ‘청개구리 탐험대’는 도심 어린이 놀이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놀이터를 펼쳐온 분당에서 지역의 놀이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분당 이우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지점을 만들 수 있었다. 창의클래스의 경우, 하자작업장학교와 SOS지역아동복지센터가 진행해온 ‘우리 동네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열 살 영상제’에서 참여어린이들의 영상작품이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한편, 놀이콘텐츠 사업을 신설하여, 놀이문화 생산과 확산의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웹툰 등을 형식을 테스트해보는 모색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성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의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순회놀이터’의 경우는 서울을 넘어 지역 거점까지 확산되는 놀이터 축제에 대한 상상과 기대가 담겨있었다. 서울을 거점으로 시민청 놀이터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다음 해의 지역거점을 논의하고 네트워크까지 확장하는 데까지는 닿지 못했다. 지역 이동을 위한 현실적 여력이 부족한 지점과, 서울에서의 지속적인 개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점이 그 이유로 작용했다고 본다.



전망

예측하기 어려운 고도의 변화와 위험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자율과 책임을 몸으로 습득하며, 회복력을 연습하는 '장'으로서 놀이(터)의 유무는 어린이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더불어, 일방적이고 획일화되지 않은 배움의 장을 모색하는 수많은 교육자들에게 스스로 제작하고 감각하는 '놀이적' 배움이 주는 영감도 지속될 것이라 볼 때, 놀이(터)의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 유사한 형태의 크고 작은 놀이 관련 행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과연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놀이를 넘어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며, 만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의미화 과정에 대한 밀도 있는 기획이 필요한 때이다.

대상자 코멘트

<놀이활동가 리뷰>

놀라운 것은, 내가 보기에 시시해 보여 조금은 무시했던 물건으로 아이들은 너무 잘 논다. 같이 놀다 보면 나도 시시하게 여겼던 물건을 더 좋게 보게 되며 쓸모를 발견하게 된다. "쓸모없는 물건은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쓸모없는 일은 없어요"를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무의식중에 그게 잘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 그런 나와 마주하는 장소가 주로 놀이터이었다. 아이들을 만나면, 관찰하면 생각이 바뀐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구를 가지고 노는 말랑말랑한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된다.

놀이활동가 찌의 7월 움터@하자 이야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생애 처음 용감한 도전을 해 본 아이들, 잔뜩 겁을 먹다가 한 번 해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즐거워하며 씩씩해진 아이들, 그 도전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해낸 아이에게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진심으로 감탄 해주고 /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선 아이에게는, 굳이 싫은 것을 다른 애들이 다 한다고 억지로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해주고. 사실, 이런 말들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하는 말들, 판단들이 아니던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위의 반응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자면 많은 배움을 얻는다."

놀이활동가 하리의 10월 움터@하자 이야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피드백(웹)>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가 있거나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동산도 아니지만, 찰흙놀이 종이접기... 옛스러운 놀이들이 가득한데 참 좋아하는 oo이! 잘 놀다 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신나게 놀고.. 청개구리 짱!”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은색 머릿결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물감에 손 담그고 놀이 중인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힐링이 저절로~”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웹툰 피드백>

우리 아기들이랑 해봐야겠어요. 즐거운 놀이 추천 감사합니다.

투연 (ymyf****)

원안에 술방울 던지기 대박아이디어네요! 4살배기 아이랑 잘 못 놀아주는 미안함에 매주 키즈카페에 데려가곤 했는데 이제 돈쓸 필요 없이 이 웹툰 내용 하나씩 따라 해볼래요~^^

최서연 (flow****)

지해도 얻고 위안도 받고 흐규흐규....바보엄마는 읍니다.

sus (bold****)

프롤로그까지 네 편밖에 안 봤는데 팬 됐어요! 스케치북 크레파스 달랑 사주고 왜 그림 안그리냐고 다그쳤던 지난과거를 반성합니다. 내일은 간단한 재료 모아다가 흰 종이에 꾸며보는 놀이를 해봐야겠어요~

최서연 (flow****)

딸아이랑 즐겁게 봤습니다. 어떤 놀이는 같이 해봤구요..기분이 따뜻해지는 그림들..감사합니다.

투연 (ymyf****)

more info

- 1) 블로그 <http://thinkingfrogs.com>
- 2) 페이스북 <http://facebook.com/thinkingfrog2012>

3) 영상
2015 마을놀이터@하자 '놀이를 소개합니다'
<https://vimeo.com/149096477>

2015 마을놀이터@하자 '놀이터 한해살이'
<https://vimeo.com/148966641>

2015 미니다큐 마을놀이터@하자
<https://vimeo.com/153198909>

2015 미니다큐 계절놀이터@분당
<https://vimeo.com/157675526>

2015 창의클래스 'Refresh Camp'
<https://vimeo.com/136598249>

4) 보도자료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64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15010008068>

창의클래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2601>
<http://home.ebs.co.kr/ebnews/menu5/schoolNewsView/10329576/N>

내외부 네트워크 & 파트너십

- ◇ 마을의례
- ◇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 2015 달시장(영등포 달시장)
- ◇ 대외 홍보사업
- ◇ 하자투어
- ◇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연구
- ◇ 연금술사 일학교

하자마을의례

개요

하자센터에서는 예년부터 성년식, 달맞이 축제 등 몇몇 의례들을 하자작업장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입촌식 등 몇 가지 의례들이 추가되면서, 돌봄과 환대라는 하자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절기와 마을 내 일정에 맞춘 의례들을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자마을의례는 마음을 모으는 형식이자 과정으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자마을 주민으로서의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사업 이름 : 하자마을의례
- 대 상 : 하자네트워크학교 학생, 하자마을 주민 등
- 진행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 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5,926,820원
- 총 참여인원 : 990명 (실 인원)

날짜	의례명	내용
3월 18일	하자마을 입촌식 '마을의 씨앗'	하자 네트워크학교 학생들과 판돌들, 사회적기업 및 허브 멤버를 비롯하여 하자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웃하여 활동하고 있는 하자마을 주민들이 참여함. 한해살이 계획을 나누며, 새로운 주민을 환영하는 하자마을 주민들 간의 상견례 자리
4월 15일	하자마을 시농제	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작년에 갈무리 해 둔 씨앗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과 여흥을 나누는 잔치. 하자마을의 농사 시작을 알리는 마을의례
5월 18일	하자마을 성년식	청소년기를 지내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넘어서는 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새겨보는 자리. 스무 살을 맞이한 하자마을의 청소년을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의례
9월 27일	달맞이축제	가족을 떠나 먼 곳에 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 등 명절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추석을 축제처럼 나들이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 2014년도부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노들야학과 함께 광화문에서 개최.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한가위 소원을 비는 축제
11월 23일~24일	김장잔치	하자마을을 비롯해 하자네트워크학교에서 진행한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수확물을 모아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김장이라는 전통 행사를 통해 협업의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결실을 하자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
12월 18일	하자 생일잔치	하자의 성장을 지켜봐온 친구들과 주민들을 초대하여 기억을 공유하고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을 잔치

성과

올해도 어김없이 하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준 마을의 어른인 촌장들을 모시고 입춘식, 성년식, 생일잔치를 열어 삶의 감각을 회복하고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 밖에도 후쿠시마 목화를 비롯하여 각종 토종씨앗을 살리고 나누는 실험의 다양성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도시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잔치인 시농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곳과 함께하는 달맞이 축제, 농사지은 배추와 무로 함께하는 김장잔치와 같은 마을의례를 통해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며 생명의 순환 속에 마을살이를 하는 '우리'를 다시 발견해내는 자리가 되었다.

전망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 사라진 시대에 '마을 의례'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4시간 365일 12개월 중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르고 있는 하자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을 우리는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자센터는 '마을 의례'를 통해 기억과 관계가 움트는 장소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의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과 상상, 그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미보다 기운이다. 함께 모여있다는 것, 그 자체에서 나오는 기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느끼고 만들어가는 다짐이 피어난다. 따라서 마을의례는 하자의 모토인 자공공(自公共) -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 플랫폼 - 을 실현해 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다함께 모여 서로의 기운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감각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자의 마을의례가 상생과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more info

입춘식 뉴스레터 <http://www.haja.net/?p=8614>

입춘식 영상 <http://vimeo.com/90446056>
<http://vimeo.com/90734470>

시농제 영상 <http://vimeo.com/100396297>

성년식 뉴스레터 <http://www.haja.net/?p=8952>

성년식 영상 <http://vimeo.com/96462255>

하자 생일잔치 영상 <https://vimeo.com/114842089>

<환경일보> “대견하고 소중한 스무살, 온 마을이 축하” 하자센터,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성년식 개최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300917>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요

2015년으로 제7회를 맞은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매년 포럼,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혁신적인 국내외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는 행사다. 이번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와 '배움의 기쁨, 삶의 기술'이라는 부제로, 저출산과 청년실업, 맹목적인 집단주의와 각자도생의 생존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삶에 대한 상상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했다.

- 사업 이름 :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대상 : 교육자 및 학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정책 및 행정 전문가, 청(소)년 등
- 진행기간 : 2015년 9월 18일(금) ~ 20일(일) / 3일간
- 참가방법 : 온라인 / 전화 신청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전관
- 총 사업비 : 금 58,591,554원
- 총 참여인원 : 3,437명(실 인원)

기획

수시로 터질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점점 극단적인 행태로 표출되는 한국사회의 분노와 적개심과 혐오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의 동력으로 바뀌어 낼 수 있을까? 답고 싶은 인생의 선배를 갖지 못한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길 찾기를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입시 문제에만 매달리는 한국의 경우, 근본적으로 진정한 학습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개인의 정서, 가족관계, 미디어 환경, 사회체제 등 여러 차원을 두루 살피면서, 진정한 배움이 가능한 문화와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위해 2015년도의 창의서밋에도 다양한 만남과 배움이 모여 각자의 경험과 구상을 나누고,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자리를 기획했다.

기조강연에서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단속사회] 등의 저서를 통해 관계 맺기와 소통 부족의 현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해온 문화학자 엄기호,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사회의 미성숙을 '자기애' '몬스터 페어런트' 등의 개념을 가지고 정신분석학적으로 해명한 정신과 의사 구마시로 도루, '비전력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철학적 발명가 후지무라 야스유키, 덴마크 세계시민대학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형태를 다양하게 실험해온 쇠렌 라운비에르, 거대한 재난을 딛고 지역사회에서 배움과 만남을 통해 생활을 재건하려고 힘을 기울이는 '후쿠시마하자' 등 국내외 급속하게 해체되어가는 '사회'를 복원 내지 생성하는 작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나서서 움직이는 분들과 함께 여러 세션을 진행했다.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 및 참여 인원

구분	행사명	참가인원	행사내용
18일 (1일차)	시민대학 포럼(순차통역)	76명	'하나의 고생이 끝나면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시절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시대가 요구하는 '전환'의 교육 차원에 대해 논의하고 배움과 성장과 더 긴밀한 연대의 계기로 삼음
	전환학교 포럼	64명	최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배움과 성장의 공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오디세이학교)와 경기도(꿈의학교)의 두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봄
	개막식(동시통역)	197명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서밋의 시작을 축하. 서밋 주제를 관통하는 개막 연설을 중심으로 오프닝과 클로징을 장식하는 공연, 축하 및 환영사, 국내외 주요 게스트 소개 등으로 구성
	서밋 대담(동시통역) - 생존주의 사회의 교육: 만능감과 패배감을 넘어	140명	어릴 때부터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를 감지한 아이들, 특히 자기중심적으로 인지하는 (유아기적) 만능감과 스스로 아무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느끼는 패배감 사이를 오가는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배움은 어떤 경험을 통해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눔
	살림포럼1. 후지무라 야스유키 초청강연(순차통역) -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한 삶의 기술 청년 편	60명	<3만엔 비즈니스>의 저자이자 비전력공방 대표인 후지무라 야스유키 선생이 선박용 폐컨테이너 세 동을 기반으로 생태적 전환과 삶의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에너지자립하우스 '살림집'의 시대적 의미를 되짚어봄
	살림포럼2. 유카의 토크콘서트(순차통역) - 유카상 이야기 <후쿠시마, 고향마을의 노래>	60명	하자작업장학교에서 꾸준히 연대해오고 있는 후쿠시마의 청년들 중 음악하는 유카로부터 노래로 들려주는 자신과 고향마을 후쿠시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음
	[연계행사] 달시장	2,000명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이라는 자체 슬로건에 충실하게 지속가능한 마을살이의 면모를 보여 줌. 특히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제주, 강화 등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채롭게 소개함

19일 (2일차)	살림포럼3. 청년의 마을살이를 위한 컨설팅워크숍(순차동역)	92명	마을에서 아름다운 시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후지무라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위한 회의와 조연을 나누는 자리가 됨
	Open Chat w/구마시로	22명	로스트 제너레이션(70년대 생부터 80년대 전반생)들이 모여서 성장기, 사회생활, 양육에 관한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눔
	Open Chat w/뽕꼬	63명	베이징, 광저우, 윈난 등 중국 곳곳에서 자립과 전환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공동체를 돌아보며, 몇 개월간의 체류기를 써내려간 '다문화 생활통역자'의 이야기 나눔
	Citycombing 워크숍	20명	해변에 흩어진 표류물을 줍는 '비치코밍(beachcombing)'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 좋아' 팀과 함께하는 대화 및 작업의 시간을 가짐
	이시대교육포럼(순차동역) - 재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꿈과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명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일본, 홍콩 3개국의 교사와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배움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
	현장포럼-SNS를 타고 흐르는 혐오와 적대	61명	각자도생의 생존주의 시대를 어른들보다 먼저 알아차린 요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독존/탈존의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출구가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 나눔
[연계행사] 작은 달시장	80명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다세대가 서로를 돌보며 어우러지는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놀이터 & 시장'의 가능성을 선보임	
20일 (3일차)	서밋 트립	60명	창의서밋 국내외 게스트 및 참여자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의 기억들을 따라, 혐오와 적대를 넘어 화해와 우정의 이웃이 되는 연대의 여행 시간을 가짐
	폐막식	120명	창의서밋 스태프과 국내외 게스트, 일반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3일간의 일정을 회고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유대를 다짐
	[연계행사] 아듀! 999	150명	서밋이 끝난 후 전면적인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는 999클럽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자를 오가는 청소년들과 함께해 왔기에 그동안 쌓인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도 또 다시 누군가에게 의미와 생기를 선사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함

PRE- OPEN 행사	전시-바다에서 왔수다	제주 바다를 소비의 대상이 아닌 아끼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돕기 위해 모인 '제주도 좋아' 팀의 초청 전시를 통해 주변과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본인들만의 제주(지혜)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사례 소개
	전시-생활기술공예	남도를 근거지로 작업하고 있는 생활기술 작업자들과 장인들의 공예품과 제작기들이 전시해 쉽게 소비되고 소진되는 삶 속에서 단순한 생활공예가 아닌 삶의 전환과 인간회복을 꿈꾸는 전통기술과 생활기술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제공
	흙건축워크숍 - 토벽(土壁), 흙으로 아름답다	1)古今의 日本미장, (2)살림집에서 배우는 적정기술 미장, (3)계란판으로 만드는 흙담 등 세 가지 워크숍 진행

해외 초청인사

국문이름	영문이름	국적	소속
구마시로 도루	Kumashiro Toru	일본	정신과 의사,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 저자
후지무라 야스유키	Fujimura Yasuyuki	일본	비전력공방 대표
쇠렌 라운비에르	Søren Launbjerg	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 교장
이노 임	Eno Im	홍콩	생활서원(School of Everyday Life)
코베 코	Kobe Ko	홍콩	nomad nomad, 홍콩창의력학교 졸업생
저 초이	Ger Choi	홍콩	홍콩창의력학교 교사
유카	Yuka Okawara	일본	후쿠시마 하자 프로젝트(고리야마)
조이도	Soeta Makoto	일본	후쿠시마 하자 프로젝트(고리야마)
스즈키 료	Ryo Suzuki	일본	후쿠시마 하자 프로젝트(고리야마)/사무국장
에가와 준지	Junji Egawa	일본	이와키 농업고등학교 교사
히루타 하나 노마타 호노카	Hana Hiruta Honoka Nomata	일본	이와키 농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요시다 에미코	Emiko Yoshida	일본	The People&Otento Sun 대표(이와키 후견인)
사토 신이치로	Sato Shinichiro	일본	NPO법인 문화학습협동네트워크
카일 홀츠헤터	Kyle Holzhueter	일본	일본 미장 장인



more info

1) 영상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영상아카이브(비메오 채널) <https://vimeo.com/channels/239133>

2) 사이트

<http://summit2015.haja.net/>

3) 기사

- 하자센터,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 일대서 열려(에듀뉴스, 2015.09.10)

- 하자센터,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연합뉴스, 2015.09.10)

2015 달시장 (영등포 달시장)

- 사업 이름 : 2015 달시장(영등포 달시장)
- 대상 : 영등포 및 서울 지역 주민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영등포 및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 그룹
 -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및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팀
 - 사회적경제 및 복지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마을 공동체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생활기술, 대안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어린이, 청소년 교육 분야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창업 희망 그룹
- 진행기간 : 2015년 5월~10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총 5회, 6월 메르스 여파로 휴장)
- 참가방법 : 자유 참가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앞마당
- 총 사업비 : 41,970,890원
- 총 참여인원 : 회당 평균 1500~2000명(연인원)
- 수행 주체 : -주최 : 영등포구(7~10월), 연세대(6월)
 - 주관 : 하자센터, 방물단
 - 협력 :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방물단
 - 후원 :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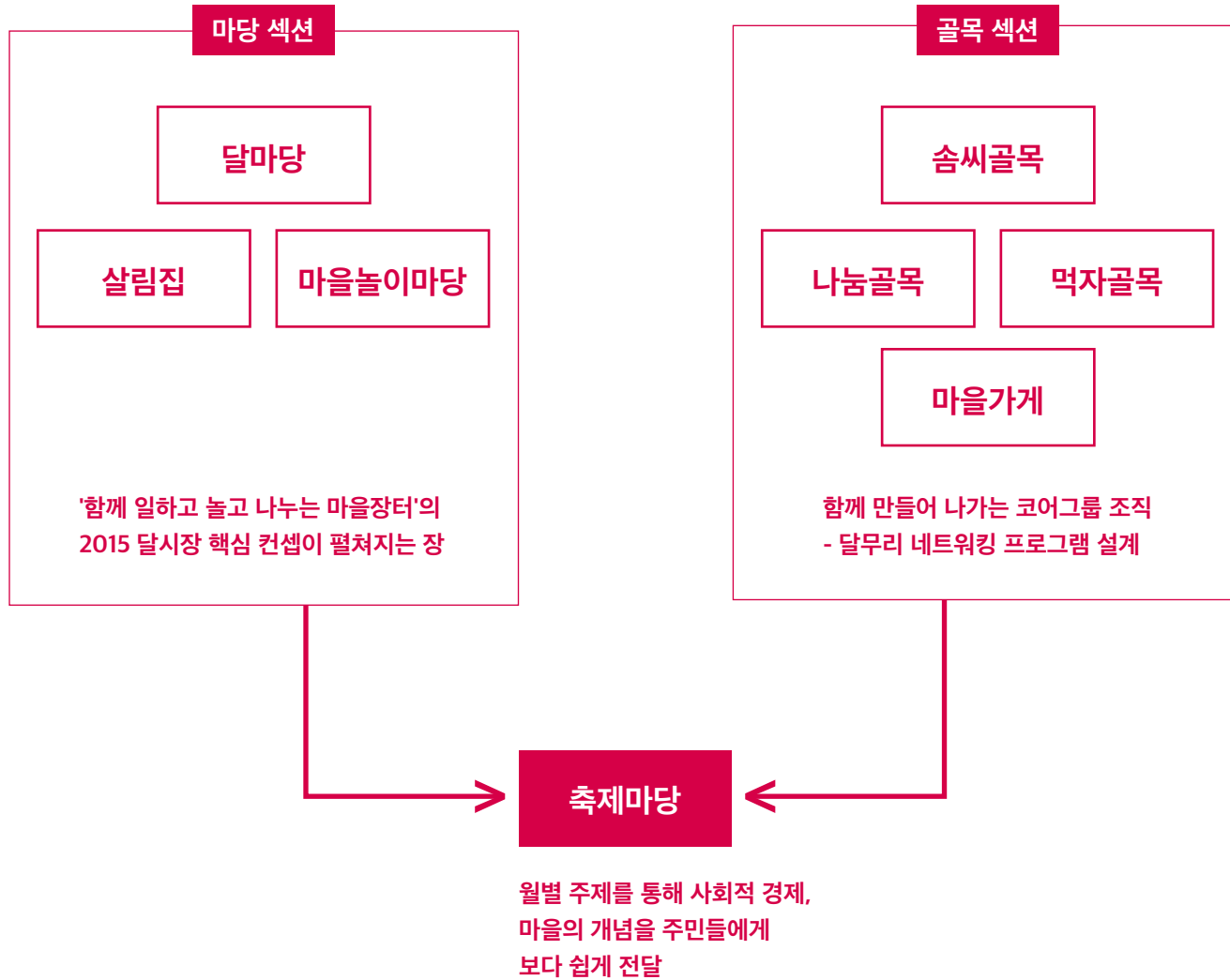
올해 달시장은 하자센터, 영등포구청, 서울시, 연세대(하자센터의 위탁운영 주체), 청년(예비) 사회적기업 방물단, 한국암웨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학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5년차를 맞이했다. 올해에도 달시장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다세대에 걸친 마을의 주민들이 지혜와 재능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일, 배움, 놀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마을살이'가 펼쳐졌다. 사회적 경제는 물론 적정기술(생활기술), 대안에너지, 지역 연계 진로 탐색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메인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장터'이며, 5월부터 6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달 1회 진행되었다.

-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영등포지역 주민들,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청년 창업팀,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청(소)년을 비롯한 취업, 창업 희망자의 진로 모색 /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 그룹들의 활동을 알리고, 콘텐츠를 공유하며, 실제 판매 및 구매가 일어나는 현장으로서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창업 희망자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화 / 사회적 경제 분야 그룹, 지역 문화예술창작자, 영등포구 등 지역 주민, 취업 희망 청(소)년 등이 자발적으로 기획, 진행, 참여하는 프로젝트 구현을 통해 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를 제시한다.

* 세부 섹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영등포 마을 커뮤니티	주민 커뮤니티 창업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영등포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해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팀 또는 영등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마을 커뮤니티 그룹이 참여
생태/대안적 마을 커뮤니티	생활기술, 물물교환, 살림기술, 적정기술 등 지속가능한 생태/대안적 이슈를 가지고 마을을 그리는 그룹이 참여

- 영등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또는 마을 사업을 하는 그룹이 함께 마을을 구성하고, 생태/대안적 마을살이가 달마당에서 펼쳐지는 장으로 구성
- 판매 중심의 구조에서 참여하는 그룹의 이야기(메시지)가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 구성
- 달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코어 그룹 구성(연 4회 이상 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월별 컨셉에 따른 축제마당 공동기획 등)



구분	주요 내용
지역 주민 워크숍	작년 마을놀이마당에서 작가로 활동한 지역 엄마들, 문화예술창작자들이 함께 주민 워크숍 진행
어울림 더울림(몸놀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전래놀이, 몸놀이 진행 청(소)년 놀이활동가가 놀이깎두기 역할 수행
자연생태놀이	나무, 물, 흙 등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 놀이프로그램 진행 - 하자센터 내 공방과 연계
우리 동네 비밀기지	하자센터 목공방에서 제작한 모바일 하우스(나무집)을 리사이클링 하여, 마을놀이마당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놀잇감이 될 수 있는 비밀기지 제작
사랑방/수유실	달시장을 찾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수유실과 휴식공간으로 세팅
어린이 물물교환	물건이 화폐로 판매/교환되는 벼룩시장이 아닌 어린이들이 자신의 물건에 담긴 에피소드가 공유되고 교환되는 형식으로 진행 나눔골목 활동과 연계 시도

- 한국암웨이 후원, 하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놀이터 섹션
- 어린이, 청(소)년, 부모, 어른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뛰어 노는 마을놀이터
- 공방 등 하자센터 내부 자원과 엄마, 문화예술창작자 등 영등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실행

구분	주요 내용
월별 주제	매월 다른 주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마을살이의 개념을 쉽게 전달 주제에 따라 워크숍, 토크, 마을의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
축하공연	사회적 경제 관련 그룹 및 인디 밴드 출연 영등포 지역 주민/단체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무대
달시장 마을 의례	마을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테마 행사 진행

-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장터’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도출된 월별 주제가 워크숍, 토크, 마을의례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장으로 구성
- 월별 주제에 따라, 달시장 각 섹션의 참가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 하는 활동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살림집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이 한국JP모간의 후원으로 진행된 ‘살림집 프로젝트’를 소개 - 컨테이너를 리사이클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완성 (5월 오픈)
적정기술 워크숍	집에서 간단히 사용할 적정기술 도구 만들기 워크숍 혹은 판매·홍보 부스 운영 - 예시 : 햇빛건조기, 휴대폰 충전기, 태양열 집열판 등
어린이 파머스마켓	서울(성미산학교), 곡성, 금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농사, 양계를 하는 어린이 농부들을 초대

- 한국JP모간 후원,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이 진행한 ‘살림집 프로젝트’는 적정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자립하우스 건축을 통한 청년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진행
- 2015년 첫 달시장에 맞춰 제로에너지 게스트하우스인 ‘살림집’ 오픈 예정 - 살림집을 중심으로 적정기술 이슈 섹션 구성
- 하자작업장학교와 연결된 전국 각지의 생태/대안적 삶을 사는 어린이 농부들과 연계한 ‘어린이 파머스마켓’도 함께 진행



5. 솜씨골목 |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지역 주민 등 지속적으로 솜씨골목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섹션

구분	주요 내용
아트마켓	청년, 지역주민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작품 판매 및 구매하는 수공예마켓
수공예 공방	수공예 작품을 함께 만드는 워크숍

- 달시장에서 단발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함께 솜씨골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코어그룹을 만드는 작업 진행 (달무리 네트워킹 프로그램)
-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지역 주민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가 전달될 수 있는 홍보물과 장치를 함께 만드는 작업 진행 (달무리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연계 - 예시 : 간판 만들기, POP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6. 먹자골목 | 건강한 먹거리, 주민 참여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장터와 워크숍이 펼쳐지는 섹션

구분	주요 내용
먹거리 장터	다양한 식문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음식을 통해 먹는 즐거움과 함께 이웃을 포용하는 장터로, 연계된 사회적경제팀이 참여 예시 :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안전하고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나누는 장터

- 달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먹자골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코어그룹을 만드는 작업 진행 (달무리 네트워킹 프로그램)

7. 나눔골목 | 소규모 지역 장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벼룩시장 및 물물교환 섹션

구분	주요 내용
작은 장터그룹과 연계	신길맘스, 녹색장터, 미드네 벼룩시장(미나길) 등 영등포 지역의 소규모 지역 장터가 나눔골목 섹션에 참여
주민 참여 벼룩시장 / 물물교환	주민들이 참여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안이 담긴 물건 등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

- 영등포 지역 내에서 열리는 작은 장터들을 초대해 함께 연계하는 벼룩시장/물물교환 섹션으로 구성
- 장터 기획, 참여자 모집 등 작은 장터들이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획/실행

8. 마을가게 |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홍보 및 판매하는 섹션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 조직 홍보 및 판매	주민 커뮤니티 창업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영등포에서 창업해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코너 배치

- 영등포 지역 기반 또는 서울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 활동을 알리는 장으로 진행



more info

사이트 www.dalsijang.kr
블로그 <http://dalsijang.blog.m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alsijang>
트위터 <http://twitter.com/dalsijang>
SNS(비메오) <https://vimeo.com/dalsijang>

2015년도 언론보도 실적

홍보일자	언론기관	홍보내용
2015.1.5	한겨레21	꼬리잡고, 얼음땀! 놀자판이면 어때요
2015.1.13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울리히 벡 선생을 기리며
2015.2.10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골든 타임'
2015.3.10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경주를 부탁해
2015.4.7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메리디안 180, 글로벌 대학의 실험
2015.4.9	여성신문	11일 민들레 · 하자센터 세월호 심포지엄 공동 주최
2015.4.20	세계일보	한국암웨이, 제5회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2015.4.20	뉴데일리	한국암웨이, '청개구리 창의놀이터'로 어린이 창의 인재 육성
2015.4.20	아크로팬	한국암웨이, 제5회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2015.5.3	파이낸셜뉴스	암웨이, 제 5회 어린이 창의인재교육행사 개최
2015.5.5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가정, 윤리의 싹을 틔우는 곳
2015.5.26	디자인정글	하자센터-JP모간, 적정기술 활용 에너지자립하우스 '살림집' 완공
2015.5.26	에너지데일리	적정기술 에너지자립하우스 '살림집' 완공 영등포 하자센터 본관 앞에 위치, 29일 오픈식 가져

2015.5.26	에너지신문	하자센터-JP모간, E자립하우스 '살림집' 완공 서울 한복판에 적정기술 주택 들어서 29일 마을장터 달시장에서 오픈식 가져
2015.5.27	패션비즈	대안장터 '영등포 달시장' 29일 시작
2015.5.27	아시아경제	주민·예술가·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영등포 달시장 운영
2015.5.27	한강타임즈	영등포구,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개최
2015.5.27	아시아뉴스통신	오는 29일부터 개최되는 '영등포 달시장'
2015.5.27	환경일보	달이뜨면 시장이 열린다 '영등포 달시장' 개최
2015.5.27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영등포구, 10월까지 매일 '달시장' 운영
2015.5.27	아시아뉴스통신	영등포구,29일 '영등포 달시장'개최
2015.5.27	연합뉴스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영등포 달시장
2015.5.27	신아일보	달이 뜨면 시장이 열린다
2015.5.28	세계일보	[메트로 통신] 용산, 건축 관련 직업탐방 운영 外
2015.6.2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고요하고 넉넉하게 늙어가기
2015.6.10	매일경제	밤이라 더욱 매력적인 어머! 이런 야행(夜行) 영등포 달시장 소개
2015.6.18	38호 홍콩 <Breakazine>	haja center 的教育
2015.6.30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연애를 허하라!
2015.7.08	디자인정글	하자센터, 젊은 작가들과 협업 릴레이 전시 '꽃의 기억' 개최
2015.7.24	아시아투데이	서울 하자센터, '창의캠프' 운영
2015.7.28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어린이집 예찬
2015.8.25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세실을 위하여
2015.9.10	베리타스 알파	하자센터,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2015.9.10	연합뉴스	하자센터,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2015.9.10	데이터뉴스	하자센터, 제7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2015.9.20	서울신문	"N포세대 좌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희망 없다"
2015.9.22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국민과 난민 사이
2015.9.25	여성신문	에너지 덜 쓰고 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기
2015.10.20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코스모폴리탄 난민'으로 다시 시작하다

2015.10.23	파이낸셜 뉴스	서울시, 24~25일 하자센터서 '청소년요리캠프' 개최
2015.10.23	천지일보	서울시, 영등포 하자센터서 청소년요리캠프 개최
2015.10.28	뉴스1	영등포구, 30일 하자센터서 올해 마지막 '달(月)시장'
2015.11.13	천지일보	서울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시민청' 개최
2015.11.15	아시아투데이	"놀면서 창의력 키우세요"...한국암웨이, 서울시·하자센터 등과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열어
2015.11.17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파리 테러와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청년
2015.11.30	미디어 다음	하자센터, 12월 3~5일 수능 끝낸 열아홉살 청소년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실시
2015.12.14	SBS CNBC	[인문학강의] 압축 성장 이론 대한민국 사회의 그늘
2015.12.14	연합뉴스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혐오 극복 위해 시민성 회복해야"(조한혜정)
2015.12.15	시사IN	언제까지 '노오력' 해야 할까
2015.12.15	한겨레	[조한혜정 칼럼] 연말 안부를 묻는 자리
2015.12.15	연합뉴스	<카드뉴스> 김치녀 vs 한남총... '남녀 극혐' 어찌하오리까
2015.12.18	중앙일보	[TONG][두근두근 인터뷰] 최현석 셰프 1 "요리사에게 자격증은 필요 없다
2015.12.27	연합뉴스	<빅데이터로 본 2016> ②"미혼 아닌 비혼" 나홀로족은 당당하다

2015년 하자투어 실적

NO	일자	정기/비정기	내용
1	1.21	서울시 행정부시장 하자투어	참관 목적 하자투어
2	1.22	1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3	1.29	일본 잡지 <빅이슈재팬> 임직원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4	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 하자투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5	2.26	2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6	2.27	일본 NPO법인 문화협동네트워크 활동가 & 세타가야구 공무원 하자투어	한국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7	3.4	오사카시립대 고타마 교수 일행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8	3.17	제주교육청 장학사 일행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9	3.18	와세다대 남은이, 사이토우 후미오(오다하라 단기대학), 미야시타 요헤이(동경수도대학)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10	3.20	충북교육과학연구원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11	3.25	cj 도너스캠프 임직원 및 일본 NPO 활동가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12	3.26	3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13	4.1	홋카이도대 등 일본 대학 연구진 방문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14	4.1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진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15	4.8	대전시청 공무원 및 실무진 하자투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6	4.9	노원구청 여성가족부(과장, 조성민주무관)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7	4.23	4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18	4.25	CJ 사회공헌 팀인 CJ도너스 임직원 및 일본 NPO 하자방문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9	4.28	고양교육지원청 하자투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0	5.15	일본 K2 인터넷서널 활동가들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21	5.15	필리핀 청소년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22	5.20	일본 오사카 교육관련 NPO 코아프레스 관계자들 하자투어	한국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3	5.21	5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24	5.27	충주시 공무원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25	5.30	고려대 교육학과 학생들 하자투어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26	6.25	6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27	7.10	상명대 계절학기 수강생 및 지도교수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28	7.17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2팀 직원 및 실습생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29	7.23	7월 정기 하자투어	일반시민
30	7.30	인천청소년회관 박성은외1명	기관 방문 및 투어
31	8.5	경기연구원 원장 및 연구위원 하자투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32	8.12	세종시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 스태프 하자투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33	8.20	8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34	8.21	지역활성화센터 주관 마을공동체 연수팀 하자투어(정읍시 내장상동 창업공동체 15명 / 지역활성화센터 직원 2명)	기관 방문 및 투어

35	8.21	광주지역 극단 토박이 & 대안교육 관계자 하자투어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36	8.27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임직원 하자투어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37	9.8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주관 '사회적 경제학교' 참여 수강생 및 스태프 하자투어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38	9.9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 아시아- 태평양YMCA 대회 해외 게스트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39	9.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초청 러시아청소년도서관 관장 및 일행 하자투어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40	9.11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이세나, 김서영 학생 진로체험 하자투어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41	9.24	9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42	10.22	10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43	11.5	일본 NIPPON FOUNDATION 방문 (희망제작소 연결)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44	11.26	11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45	11.27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하자투어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46	12.2	일본 홋카이도대 연구진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47	12.8	제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연수교육 하자투어	기관 방문 및 투어
48	12.10	12월 정기하자투어	일반시민
49	12.11	대구시청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50	12.2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실 운영 교사들 하자투어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51	12.29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임직원 하자투어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연구

《'각자도생' 생존사회에서 공생/재생 사회로》

연금술사 모임에 초대합니다

1차 오프닝 포럼

각자도생 사회의 감정의 구조

■ 사업 이름 : 저성장 위험사회 전환도시와 청년 연구

《'각자도생' 생존사회에서 공생/재생 사회로》

■ 대상 : 세대론의 일반화된 담론으로서 청년이거나 하위문화로 특정
화된 청년이 아닌, 일 못/하는 청년들과 이를 둘러싼 가족,
공동체, 학교, 일터, 생활지역, 여가활동지역, 도시, 국가 등의
단위에서의 청년의 경험과 일상. 참조 연구로 일본 청년 포함

■ 진행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공동연구기관 : 하자센터, 서울연구원

■ 연구진 : 공동 책임연구원(조한혜정, 엄기호), 공동 연구원(강정석,
양기민, 이충한, 최은주), 보조연구원(황은교)

■ 총 사업비 : 59,386,613원

4월 22일 (수) 오후 7시 ~ 9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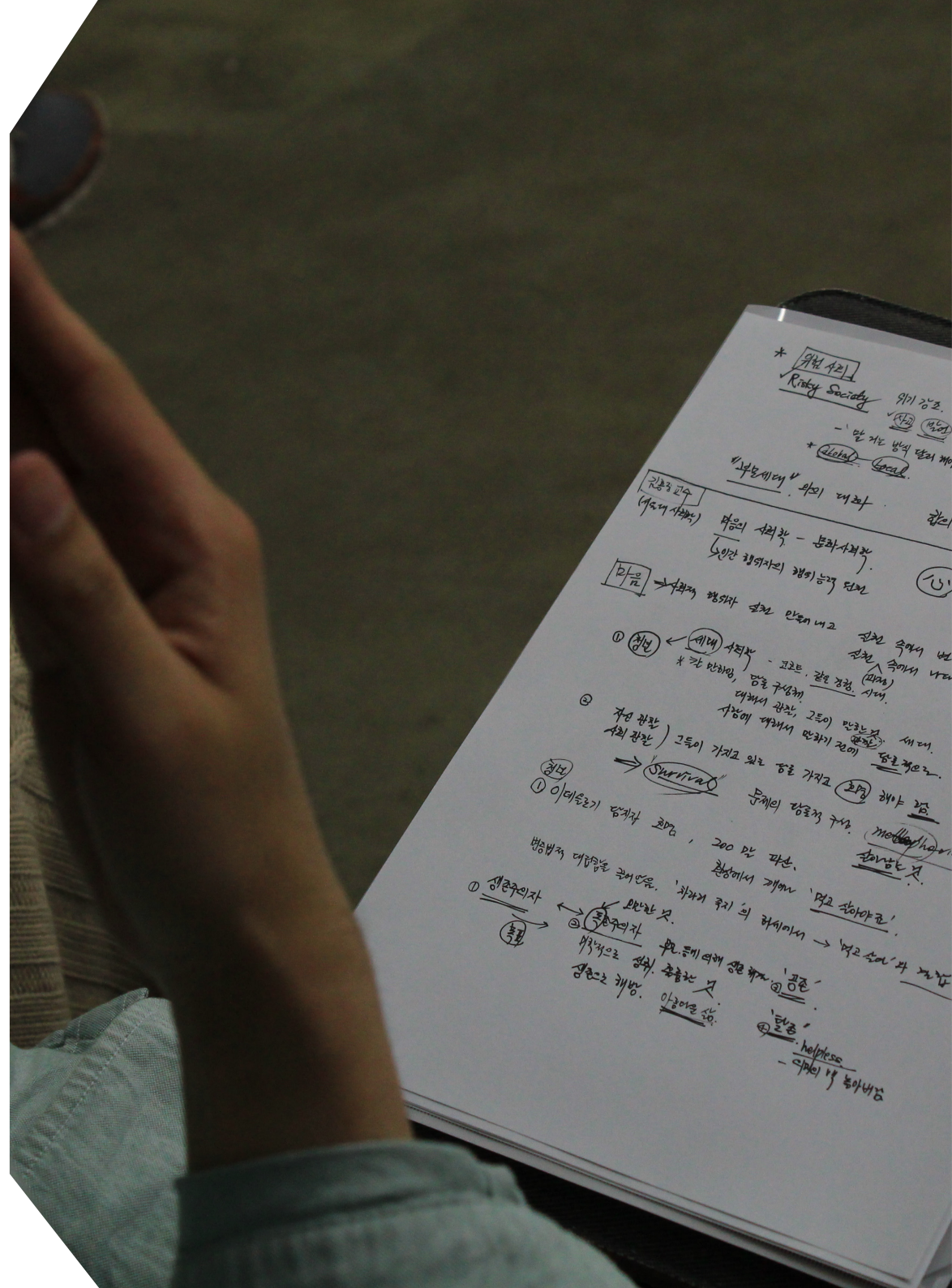
장소 : 청년허브 세미나실

연구배경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적대화 양상 등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 스스로 살길을 찾음) 사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가능성을 냉소하며 불신하는 청년세대(reset 세대)의 등장 및 전 세대의 '마음의 과격화(radicaliz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위험사회의 작동원리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리라 예상되며, 대도시 서울 시민들의 적대와 과격화를 조절 및 회복하기 위한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주요 내용

1. 과격화의 대상 : 청년 세대의 분노와 불신의 원인이 되는 부모, 친구, 직장상사와 동료(선후배), 정치인, 유명인 등 가시적 행위자들로부터 제도와 시스템, 국가 등 비가시적 대상 연구
2. 과격화의 유형화 : 배타적 인종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차별,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 및 허무주의, 극단적 형태의 조절 장애 등의 현상 분석
3. 과격화에 이르는 경로 : 청년들의 생애사적 경험(학교, 부모와의 상호작용, 일경험 혹은 실업경험 등) 을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4. 미래 전망의 단위 모색 : 도시 내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사회적 단위를 모색 및 제안



연구방법

1.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 : 연구 활동을 통해 메타담론 언어를 만들어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공론장을 만들며 이를 통해 청년 현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청년 연구자 크라우드 리서치(youth crowd research) : 청년 당사자 연구자(20~30명)를 초대하여 책임연구자들과 포럼/워크숍/공동 연구 세미나를 통한 상호학습과정에서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진행
3. 연구의 이론과 내용 구성 및 연구 설계를 하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의 기획자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공동연구, 청년 당사자 연구자들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해석학적 순환 과정으로 연구 진행

연구진행 및 성과

오프닝 1차 포럼 '각자도생 사회의 감정의 구조'

일시: 2015. 4. 22.
장소: 청년허브 세미나실

조한혜정(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_각자도생의 위험사회
김홍중(서울대 사회학과 교수)_서바이벌, 생존주의와 마음의 과격화
서민정(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_청년세대 불안과 생존조건
이윤정(KBS PD)_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오프닝 2차 포럼 '한국 청년들의 감정의 시공간 연구'

일시: 2015. 4. 29.
장소: 청년허브 세미나실

김학준(아르스프락시아 연구원)_일베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적대
엄기호(문화학자)_생존주의를 넘어서



오프닝 3차 포럼 ‘저성장 사회의 청년 문화연구 I’

일시: 2015. 5. 20.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103호

모현주(노스캐롤라이나대 인류학과 박사 수료)_영어 청년 문화와 시간성의 문제
이충한(전 ‘유유자적 살롱’ 공동대표)_무중력 시대 시간성과 삶의 서사

오프닝 4차 포럼 ‘저성장 사회의 청년 문화연구 II’

일시: 2015. 5. 27.
장소: 하자센터 신관 203호

우승현(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_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와 어학연수를 떠난 청년들
이민영(서울대 문화인류학과 박사 수료)_인도요가 수련여행을 떠난 청년들
조문영(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_글로벌 빈곤의 퇴마사들

제7회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개막식 기조강연

일시: 2015. 9. 18.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하하홀

엄기호(문화학자)_교육의 불가능성, 배움의 가능성
구마시로 도루(정신과 의사,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 저자)
_자아 과잉의 저성장 사회와 인간의 성숙

제7회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현장포럼 ‘교실현장기술지 : SNS를 타고 흐르는 혐오와 적대’

일시: 2015. 9. 19.
장소: 하자센터 신관 203호

정태윤(중등교사)_우리는 왜 일베를 공부하려고 하는가?
이종명(고려대 언론학과 박사 수료), 조종완(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과정)
_‘평등한 병신, 혐오할 권리’의 세상과 소년들
김환희(교육공동체 벗)_생존과 권력에 민감한 아이들과 어떻게 즐겁게 배우며 지낼 것인가?
토론: 김학준(아르스프락시아 연구원), 혜원(중등교사), 김현주(중등교사),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비공개 헬조선 학회

일시: 2015. 10. 3~4.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김주원(출판사 편집자), 김영(롯데호텔 해고 노동자), 김학준(아르스프락시아 연구원),
나일등(도쿄대 특임연구원), 양승훈(대기업 재직), 오수람(청어람ARMC 편집장),
이승환(「표표사」 편집장), 인수진(전 방송작가), 안병희(IT업계 퇴사), 장현동(용접공),
최태섭(「잉여사회」 저자), 혜원(중등교사), 황재용(영업직 퇴사)

번개 집담회

일시: 2013. 10. 14.
장소: 홍대 인근

책읽기 모임

일시: 2013. 8.~현재

서울연구원-하자센터 공동연구 기획 연재 '헬조선 다시 읽기'

강정석「'난민'이 된 한국 청년」, 「시사인」 [429호] 2015년 12월 8일자
최은주 「언제까지 '노오력' 해야 할까」, 「시사인」 [430호] 2015년 12월 15일자
양기민 「'존중의 원체험' 있어야 '벌레 공화국' 벗어난다」, 「시사인」 [431호] 2015년 12월 23일자
이충한 「저렇게 살기 싫는데 방법이 없다」, 「시사인」 [432호] 2015년 12월 31일자

'노오력의 배신' 출간

초판 1쇄 발행/2016년 4월 15일

지은이/조한혜정·엄기호 외
펴낸이/강일우
책임편집/윤동희
펴낸곳/(주)창비



2015년 무수한 언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바로 ‘헬조선’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청년들은 ‘헬조선’이라 부른다. 이 연구는 ‘헬조선’이라 부르짖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또 청년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이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조직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는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헬조선’을 살고 있는 동시대의 여러 세대들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노오력의 배신’ 출간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노오력’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가기를 시도하고, 함께 사회적 해법에 찾아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필하게
정한
공 사회의
풍경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조한혜정·엄기호 외 지음



노동과 청년의 미래를 다시 그린다

지금 한국의 ‘잘나가는’ 조직에서 사람을 양성하는 방식은 박하다 못해 가혹하다. 조직원을 보호하거나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전쟁터에 던져놓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요구한다. 사람의 성장에 관한 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표준’은 전쟁 모델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강하게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사자를 훈련시키듯 후배들에게 현장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용감하고 희생적이어야 오래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조직이 더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오래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진 사람을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냥 무책임한 것이다. 그냥 살아 돌아오면 썰먹고 죽으면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에게서 사라지는 감각이 있다. 바로 사회에 대한 감각, 사회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보호될 수 있다는 감각이다. — ‘왜 한국만 조용한가, 아니, 난리인가?’, 중에서

정한혜정·엄기호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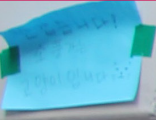
노오력의 배신

과 13,800원
03300
9 788936 472863
ISBN 978-89-364-7286-3

창비

창비 Changbi Publisher

연금술사 일학교



- 사업 이름 : 연금술사 일학교
- 대상 : 비진학미취업 18~24세 후기청소년
- 진행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장소 : (주)연금술사 업장 및 서울 전역
- 총 사업비 : 50,000,000원
- 총 참여인원 : 88명(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용 81명, 청(소)년 장기 인턴십 제공 7명)

개요

‘연금술사 일학교’는 비진학·미취업 후기청소년의 먹고 살기를 둘러싼 곤란함을 풀어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음식업) - 진로교육 통합모델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한 파일럿 사업이다. 이 사업은 JP모간이 연세대를 통해 후원한 교육사업 ‘자생, 삶의 기반’의 지원을 받아 운영 받았다. 청(소)년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은 연세대 현장 기관인 하자센터와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주관했으며 ‘연금술사 일학교’는 하자센터와 (주)연금술사가 공동 주관하였다. 또한 기획 초기부터 줌마네, (주)오요리아시아, (유)별일사무소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함께 기획하며 진행해 나갔다.

비진학 미취업(NEET) 청소년의 핵심문제는 1) 사회적 실패로 짧은 근로와 NEET 상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20대 후반 이후에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는 점, 2)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국가 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해마다 1인당 624만원 근로소득세 감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EET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연금술사는 NEET청(소)년의 근속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단기, 장기적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

1) 단기양성솔루션

1-1) 사업 내용

- 매장 자가 입주 및 신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용을 통한 양적 확장

• 성미산마을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4호점 자가 입주(20평)를 통해 성미산마을 일대에 불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소고를 보호하고 안정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

• 2014년에 시행한 <연금술사일학교> 수료생 9명 중 4명을 소고에 고용하여 인력의 양적 확장을 꾀함. 이를 통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순환 구조가 마련되었고,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일을 전수하는 방식이 학습 효과와 소속감 형성에 훨씬 긍정적이라는 점을 알게 됨.

- 다과 프리미엄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혁신

• 연초 다과 담당자 고용 및 다과 메뉴(핑거푸드, 쿠키, 케이크, 양갱, 음료 등) 개발을 통해 불경기에 식사비용을 줄이고 저렴하고 간편한 식사대용 메뉴를 찾는 손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음.

• 단맛을 줄이고 쌀가루, 찹쌀가루, 콩가루 등 한식재료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 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담백한 소고만의 차별화된 다과 메뉴를 개발함. 이를 통해 기존 한식 중심의 소고 식사 메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매출 동반 상승 작용에 일조함.

- 브랜드 리뉴얼을 통한 도약 마련

• 2016년 2월 출시를 목표로 브랜드 리뉴얼을 실시함.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유지 및 이후 청(소)년이 분사 형태로 창업할 경우를 염두에 둔 브랜드 도약 예정.



1-2) 성과

- 2015년 신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용 및 고용 유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
인원	7명	7명	7명	6명	7명	7명	7명	7명	7명	7명	6명	6명	81명

- 2015년 청(소)년 장기 인턴십 제공 : 성미산학교 재학생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
인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7명

2) 장기양성솔루션

2-1) 사업 내용

-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발굴 및 교육

• 2014년에 시행했던 <연금술사 일학교>를 연장하여 실시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대안학교 및 청소년기관, 지역기관, 사회적기업 등과 아래와 같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함.

날짜	내용	기관명
4월1일	청(소)년 교육사업 네트워크 형성	(주)오요리아시아
4월9일	쉼터 청(소)년의 진로지원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새날을어는청소년쉼터
4월16일	대안학교 청(소)년 인턴십 교육 네트워크 형성	성미산학교
4월17일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지원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노원교육복지센터 '창창한 작업장학교'
4월20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 형성	K2
4월22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 형성	커피동물원
6월22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진로지원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박차고' 프로그램

9월16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소고 방문 및 간담회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박차고' 프로그램
10월8일	취약계층 청(소)년 창업 교육	노원교육복지센터 '창창한작업장학교'
12월8일	2016년 대안학교 진로지원 사업 TF 구성 및 1차 모임	(주)사람마중, (주)오요리아시아, 대안교육연대, 삶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은둔형 청년취업지원 '박차고' 프로그램과 (주)오요리아시아와 연계하여 진로 상담 및 인턴십 교육, 고용의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함.



- 현재 '2016년 대안학교 진로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TF(사회적기업, 대안학교 단체, 중간지원기관 등)를 구성하고, 모임을 진행 중임.

- 근로환경 혁신 : 성장기에 적절한 형태의 근로환경 개선

- 자율임금제도 시행
: 구성원이 많아지고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자율성과 주인의식 형성, 소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공정하고 공평한 일터 만들기'라는 소고의 운영 철학에 따라 2016년부터 이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의 경우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전일제 시행

: 청소년 구성원이 청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어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숙련도를 갖추게 됨. 또한 청년으로 성장한 구성원에게 걸맞은 업무 형태가 필요해짐과 동시에 독립생활자로 밥벌이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할 필요성이 생김. 이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6시간 근무제에서 전일제로 근로하는 형태를 도입함.

- 직무능력/리더십 향상 프로세스 구축

- 청(소)년 주주/이사 2명 영입

: 12월 현재, 입사 1년 이상 2명의 청(소)년 구성원이 주주/이사가 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작업 중.

- 청(소)년의 생애 설계

: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생애 과업에 따른 설계를 실시함. 20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군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임. 이에 따라 청소년주식소유제를 통해 군대 제대 후에도 언제든지 소고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정된 진로를 제공함.

> 소고 구성원의 진로 설계를 위해 외부 인턴십 교육(㈜오요리아시아의 <페레노> 레스토랑)을 한 달 동안 실시함. 인턴십 교육을 통해 서양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스스로의 진로를 확정함. 이 과정은 소풍가는 고양이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 협력회사를 통해 진로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을 설계하게 됨.

성과 및 전망

2015년의 성과로는 신규 고용 청(소)년이 선후배 체제를 통해 적응하고 숙련되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더불어 신규 청(소)년의 첫 근무 기간이 보다 길어짐을 확인했다(평균 8개월). 매장 확장 이후 체계가 잡히면서 회사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 청(소)년들에게 소속감과 적응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발굴부터 진로 확장까지 모든 설계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협력체계와 대안학교 진로지원 사업 TF를 설계 할 수 있었다.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함에 따라 회사 운영 방식도 그에 맞춰 바뀌어간다는 점을 알게 되고, 어른으로 성장한 청(소)년에게 소풍가는 고양이가 적절한 일터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한 해였다. <소풍가는 고양이>가 단지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자율임금제와 전일제 실시를 통해



실제 공정하고 공평한 일터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2016년 상반기 브랜드 리뉴얼 런칭을 시작으로, (주)연금술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접근을 하는 가게'로서 매장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발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more info

소풍가는 고양이 페이스북
<http://picniccat.com/>

2015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haja Center annual report

기획 & 편집 미디어팀
디자인 여다함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 2677 9200
www.haja.net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6, haja Center. Some rights reserved.

